

금주일언 공덕과 신을 행하면 나
이가 기쁨을 보고 보물이
와서 복을 받는다. 좋은 습관에서 오는 기
쁨과 웃음이다.
(법구경·우암품 238절)

東大新聞

발행 일	행인 일	인간 일	민 일	병 일	전 일
월	주	국	심	의	심
일	일	일	이	의	심
일	일	일	이	의	심

편집국: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2360-3492)
FAX (02) 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2770-2057)

제 1166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나-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5년(불기2539년) 2월22일 (수요일) 1

'94학년도 학위수여식

서울 24일, 경주 22일

'94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오는 24일과 22일 서울·경주캠퍼스에서 각각 거행된다.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중강당에서 열린 서울캠퍼스 '94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는 오복원 이사장, 민병천총장, 황병수 총동창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사42명, 석사 2백85명, 학사 1천8백4명이 학위를 받고 관리자과정 1백77명, 연구과정 28명이 수료증을 받게된다.

서울캠퍼스 전체수석은 평점 4.5 만점에 4.45(1백53학점취득)를 얻은 최원섭(불교)군이, 전체차석은 4.41(1백41학점취득)을 받은 박동원(독문)양이 차지했다.

각 단과대 수석졸업자는 다음과 같다. (필호안은학과 및 평점)

△불교대=정희철(불교, 3.91) △문과대=변기남(국민윤리, 4.18) △이과대=송정환(물리, 4.18) △법과대=신민철(법, 4.14) △사과대=정석기(행정, 3.95) △경상대=박원우(정보관리, 4.24) △산림자원대=이덕재(산림자원, 4.20) △공과대=전구원(산공, 4.21) △사범대=김현정(수교, 4.12) △예체대=김수경(미술, 3.86) △이부대=김현숙(무

역, 4.37)

또한 전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인 고정환(경제)외 12명이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고 정광균(산)군이 총무위원장상을, 한장섭(독문)전총대 의원이 총동창회장상을 수상한다.

한편 오늘 22일 오전11시 문무관에서 '94학년도 경주캠퍼스 학위수여식이 열린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지역개발대학원 석사 8명과 관리자과정 51명, 학사 1천4백67명등 총1천5백26명에게 각각 학위와 수료증이 수여된다.

총 1백44점 학점이수에 평점 4.28을 얻은 김태영(가정교육)양이 전체수석, 총 1백43점 이수에 평점 4.28을 얻은 박수경(불교아동)양이 차석을 차지했다.

각 단과대 수석졸업자는 △불교대=장화희(불교, 4.27) △인문대=이숙희(영문, 4.26) △자연대=이광신(생물, 4.18) △법정대=김상길(행정, 4.17) △상경대=김효정(경산, 4.19) △한의대=서영준(한, 3.58) △의과대=박동진(의예, 4.09) 등이다.

신규교수 41명 채용 오는 3월1일자로 발령

'95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로 총 22학과에 서울캠퍼스 19명, 경주캠퍼스 22명(일반계열 5, 의학계열 17) 등 총 41명이 채용되었다.

학과 심사 후 총장명단, 교원인사위원회, 재단 이사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 신규교수를 학과별로 살펴 보면 의학과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캠퍼스 불교학과, 경영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가 각각 2명이며 국문학과, 영문학과, 수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무연학과, 회계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미술학과에 각각 1명씩이다.

또한 경주캠퍼스 역시 불교아동학과, 국악과, 국사학과, 생화학, 전자계산학과, 한의학과에 각각 1명씩이 신규교수로 채용되었다.

이번학기 신규교수로 채용된 41명의 교수 중 32명이 3월1일자로 발령되고 의학과 교수인 정용욱, 조용래, 손형규, 권영무, 목진호, 강일석 신규교원은 오는 5월1일자로 김기호, 이동석 신규교원과 이준희 신규교원이 지난 1월3일자와 12월1일자로 각각 발령되었다.

이경숙 여사 경주캠에 장학금 전달

불교신자인 이경숙(경주 현곡면 354-1)여사가 지난 15일 본교발전과 불우한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1백만원의 부총장 김갑주(국사학) 교수에게 전달했다.

장학금 해택 해당 대상은 성적B+ 이상의 가사빈곤자로 2인을 선발, 각 50만 원씩 지급한다.

앞으로 범명인 여여성(如如) 장학이단 장학명으로 매년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젖었던 힘까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새내기 새로 배움터가 설악 현대 체미리기 장면.(취재부)

제13대 총장에 송석구교수

재단이사회에서 선임, 27일 취임식

본교 제13대 총장에 부총장이었던 송석구교수(철학)가 선임되었다. 지난달 25일 재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송석구교수는 현 민병천 총장의 임기가 이번 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27일 취임할 예정이다.

송석구교수는 지난 1월15일 교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 3차투표에서 2백35표의 지지로 1백93표를 얻은 조희영(경영학)교수와 함께 재단법인 이사회에 선임요청된 바 있다.

한편 87.9%의 투표율을 보인 교수회 선거의 결과는 1차 투표에서 △기호1번 민태진 후보=21표 △기호2번 오형근 후보=8표 △기호3번 김인제 후보=24표 △기호4번 조희영 후보 1백3표 △기호5번 홍치우 후보=92표 △기호6번 송석구 후보=1백57표 △기호7번 박준하 후보=35표를 나타냈으며 무효표는 2표였다.

2차투표에서는 조희영후보가 1백43표 홍치우후보가 97표, 송석구후보가 1백99표의 지지를 얻었으며 1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이어 실시한 3차투표에서는 총유권자 5백3명중 4백43명이 투표, 송석구 후보가 2백35표, 조희영후보가 1백93표를 얻었다.

선거결과에 대해 이순용교수회장은 "후보자 모두의 공약사항을 합친다면 1조원이 넘는 것"이라고 말하며 7명의 교수가 모두 총장이 될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비대위를 결성 전체 직원의 단독 선거를 실시한 직원노동조합(위원장=김윤길)은 지난 1월 13일 서울과 경주에서 각각 투표를 실시 15일 혜화관(G 205)에서 개표했다.

선거결과는 한국자모순에 따라 △김인제 후보=1표 △민태진 후보=3표 △박준하 후보=14표 △송석구 후보=1백17표 △오형근 후보=8표 △조희영 후보=1백30표 △홍치우 후보=92표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19표로 총 3백84명이 참여했다.

송석구교수의 총장 취임식은 오는 27일 11시 중강당에서 거행 된다.

논문게재 특별연구비 지급 서울·경주 2백1명 교수 혜택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는 본교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우수한 연구논문을 전문 학회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논문게재 특별연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 지원제도는 학회원 2백명 이상, 교수회원 2분의1이상, 15개 대학 이상, 논문 심사제도가 확립된 학회의 국내학술지와 외국의 유명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대상으로 외국 학술지의 경우 단독연구 1백50만원, 2인공동연구 1백만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작년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교수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서울, 경주 교수 중 2백1명을 선정하여 총3억9천2백213만9천원원을 예산으로 책정, 1차 연구비로 1억2천9백213만9천원이 올해초 지급되었다.

최형우 국회의원 명예박사 학위수여

최형우(민자당의원·정치외교 63) 전 내부부 장관의 명예정치학박사학위 수여식이 지난 1월20일 총장실에서 진행되었다.

2백여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명예박사학위수여식은 민병천 총장의 식사와 오복원 이사장의 축사와 최형우 명예정치학박사의 답사를 마지막으로 사후 수여후에 끝났다.

보리수

구도의 정신

해인사에 가면 퇴설당(堆雪堂)이란 편액이 붙은 조그만 담자가 있다. '눈이 쌓이는 집'이라는 뜻의 이 담자는 전통적으로 해인사의 조실이나, 방장스님이 거거해 오고 있는 집이다. 93년에 일찍한 성철스님도 오랫동안 여기에서 총림의 수행자들을 가르쳤다.

건물만으로 본다면 특별한 것도 없는 이곳에 항상 큰스님들이 거거해 오고 있는 것은 편액에 담긴 의미가 선종의 구도정신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퇴설당이란 편액에 담긴 유래는 이렇다.

선종의 초조(初祖) 달마대사가 송산의 소림굴에서 9년간 면벽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신광(神光)이라는 장년의 구도자가 달마대사를 찾아왔다. 그러나 달마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때는 마침 겨울이어서 한설(寒雪)이 내려 하리까지 쌓였다. 그래도 신광은 물러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달마가 그제서야 반응을 보였다.

"정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명(神命)을 내린질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너는 과연 그럴 준비가 돼 있느냐"

신광은 그 말을 듣고 서슴없이 칼을 뽑아 팔을 잘라 스승에게 바쳤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떨어졌다. 구도자가 금강과같은 마음을 확정한 달마는 드디어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래 무엇을 알고 싶은가?"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마음은 구할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미 너의 마음은 편안해졌다"

눈 쌓인 겨울밤, 스승에게 팔을 잘라 바친 그 구도자는 나중에 이름을 배가(裴可)로 바꾸고 선종의 제2대 조사가 됐다. 이 얘기는 '전통'이란 책에 나온다.

해인사의 퇴설당은 바로 이 해가의 설중단비(雪中斷臂)정신을 수행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집이다. 누구든 이 집앞에 오려면 눈 속에서 팔을 자를 만큼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3천배를 해야 친경을 허락했다는 성철스님의 속뜻도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다. 이맘때면 학교는 늘 새로운 다짐으로 생각이 된다. 모두가 올해는 공부와 연구에서 남다른 성과를 낼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정작 가을이 돼서 우리가 받아드는 성적표는 늘 불만스러운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혹 눈속에서 팔을 자르던 해가 대사의 같은 치열함이 모자란 탓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람도 좋고, 우정도 좋고, 공부도 좋고, 연구도 좋다. 눈 쌓인 겨울밤 팔을 자르는 그런 치열함으로 새 학기를 시작할 일이다.

洪 思 誠

교수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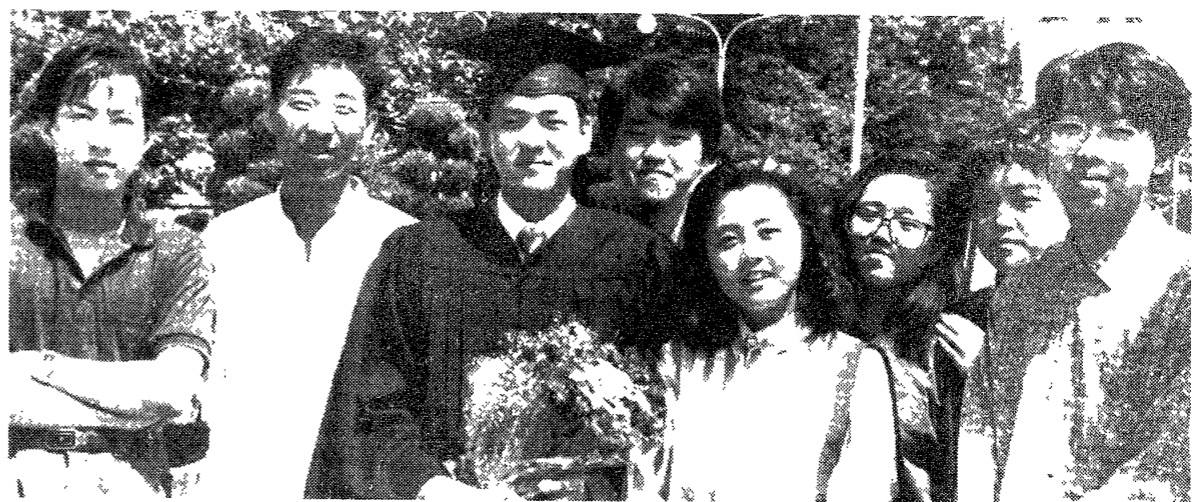
◇95학년도 1학기 장기 해외연수자 현황

- ▲박종훈(국민윤리학과)=오는 3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미국 연수.
- ▲손성(법학)=오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중국 연수.
- ▲최희식(불교학)=오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일본 연수.
- ▲설영기(국제경제학)=오는 3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미국 연수.
- ▲한진수(회계학)=지난 9월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미국 연수.
- ▲강석원(원어일문학)=오는 3월 1일부터 내년2월28일까지 일본 연수.
- ▲이영환(경제학)=오는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미국 연수.
- ▲김홍범(화학)=지난 12월17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미국 연수.
- ▲조의연(영어영문학)=은 지난 12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영국문화원지원으로 영국연수.
- ▲변정용(전자계산학)=지난 2월 부터 내년 1월까지 한국과학재단지원으로 미국 연수.
- ▲이민용(농생물학)=지난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네덜란드 연수.
- ▲김영철(중어중문학)=지난 2월부터 내년1월까지 중국 연수.
- ▲김영재(경제학)=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미국 연수.



졸업은 끝이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합니다
뜻깊고 경사스러운 오늘
졸업생 여러분의
참편 시작을 기원합니다

더 큰 배움을 시작하는 날



동대신문사

이사장
졸업치사

졸업, 더 큰 배움의 시작
자비정신 실천에 앞장서길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영광스러운 졸업의 기쁨을 이자리에
게신 여러 친지 가족 그리고 내의 귀빈
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여러분의 화창시절은
시련과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 선진제국들의 보호
무여주의 등으로 변혁의 시대가 열렸습
니다.
또 세계화, 국제화의 물결은 이제 온
인류의 중심적 과제가 되어 가고 있습
니다.
눈앞에 닥친 21세기를 응시하면서 이
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사회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경험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련의 마당입니
다.
그러나 본인은 어떠한 난관일 지라도
해쳐나갈 수 있는 바탕이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연찬한 학문적 소양과 지성적
자긍심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모교 동국대학교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이 될 것입니
다.
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경쟁률을 뚫고
입학한 우수한 신입생들이 있고, 또 우
수한 교수들이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
습니다.
금년에 완공될 동국학술문화관과 함
께 제3캠퍼스건설, 수도권의 불교병원
건설등을 목표로 우리 동국인들은 최선을
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시하는대로 10만 동국인들은 이미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에서는 동국대가 물려온다는
표현처럼 우리의 기상을 드높이고 있
습니다. 또 학계, 문화계뿐 아니라 범조

계,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동국의 함성
은 요원의 불길처럼 치솟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이 선배들의 격려속
에 보람찬 미래를 열어 가실 것을 당부
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본인은 여러분의 은사, 그리
고 학부모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뜻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의 교수님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학문적 완성과 인격
도를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은사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결코 오늘
의 영광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학부모님들은 학업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
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만 나날들이 펼
쳐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
선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거듭 기원
하면서 이만 졸업의 치사 말씀에 가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오록원 함장

총장
졸업식사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
학문적 소양·자긍심으로 활로 모색해야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고
의 노력 끝에 졸업과 학위취득의 영광을
얻게된 여러분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모교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
력을 쏟고 계시는 황명수총장회장께 명
예박사학위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식전을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오복원이사장님을 비롯한 이
사님, 대덕스님들, 전임총장님들, 동창회
간부님, 내외귀빈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영광이 있도록 애써주
신 가족과 친지 및 교수 직원 모든 분
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학위 취득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동국의 품에서 배우
고 성장하며 꿈을 키워 이 민족과 나라
를 위한 충만한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맞는 현실사회는 꿈
과 낭만이 그대로 받아 들여지는 평탄
한 곳이 아닙니다. 냉혹한 시련과 무한
경쟁이 전개되는 곳입니다.
대목이 오늘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
의 전개와 더불어 물질적으로는 풍부해

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치혼돈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선진조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야 하고 지속적인 자기개혁과 발전을
거듭해야만 합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면서 국가
간의 관계는 무한경쟁과 협력이 교차되
는 복잡함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아직도 본질적인 변화를 하지 않고 있
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여러분을 보내
는 본인으로서의 축하와 함께 몇가지
간곡한 당부와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취득한
지혜와 불퇴전의 정신으로 자비정신을
실천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인으로서 참다운 불교정신을 실
현하여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양심과
올바른 역사관과 윤리에 따라 이웃과 사회에
공헌하는 봉사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
니다.
둘째, 여러분은 학문을 마감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부터 더 큰 배움
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로서 학사, 석사, 박사
중 하나의 학업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러나 여러분은 오늘에야 비로서 깊고
먼 배움의 길을 향해 새로 출발하는 것

입니다.
발전하는 지성인은 끊임없는 자기성
찰과 연마를 계속할 때 더욱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도 인격과
학문을 갈고 닦는 평생교육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원한 동국인으로서 모교를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바랍
니다. 거듭 졸업을 축하하면서 여러분
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
기를 기원합니다.

총장 민병천 함장

15%인상된 등록금 고지서 발부
총학생회, 등록금협상 거부 결정

'95학년도 1학기 등록금고지서가
오늘(22일) 학교측에 의해 15%인상
된 상태로 일방고지됨에 따라 그
동안 5차례 진행되어온 등록금 협
상 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학교측은 "학사일정을 맞추기 위
해 일방고지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등록금고지발부 이후에도 협상 자
리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총학생회
(회장=안진우·국교4)는 "일방발부
는 학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어
제 열린 총운위에서 협상거부를 결
정했다.
이번 등록금협상은 예년과는 달
리 총장선거 등의 재단 문제로 한
달여 늦게 시작됐으나 지난 20일까
지 5차례동안 "몇%를 올리느냐가
아닌 등록발전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하는가"를 중심 주제로 진행됐
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제시된 '95학
년도 학교 가예산의 책정과 재단에
관한 사항등에서 학교와 학생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전처럼
"말바자기"식으로 협상이 이어졌
다.
학교측은 지난 1월27일 열린 두
번째 협상 자리에서 대학총장겸
대비를 위해 교수총원, 교육시설설

비부자와 물가인상등을 근거로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대학 종합평가
인정제 대책에 대한 공개및 학생의
의견수렴을 요구했고 분담한방병원
건립 40억원및 임상교수 임금등 재
단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재단부분과 관련하여 학교측은
"재단일은 잘 모른다"는 입장을 취
해 총학생회는 "학교남국은 재단과
전혀 무관하다는 무책임한 논리로
회피하려하지 말고 재단을 견인하
려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
장했다.
한편 오는 26일 경주캠퍼스에서
여섯번째 협상이 잡혔으나 등록금
고지발부로 인해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학자위원장 최홍배(국교4)군은
"등록금고지가 일방발부된 이상 더
이상의 협상의 이유는 없다"며 "그
러나 전체적인 학교발전의 모습으
로 돌아가 임기만료 위치에 있지
않은 책임있는 선에서 협상의 여지
는 있다"며 다음달에 과총회나 토
론회를 통해 등록연기문등등을 합
계해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주캠퍼스 총학생회(회장

=배문석·국교3)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4차
등록금협상결과와 함께 이에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신입생고지서에 의거 경주캠퍼스
실질인상률 17%의 경우에 대한 학
교측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던 점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논의의 정
점이 학교측이 아닌 재단측인에 의
견을 같이했다.
또한, 전체 예산 인상액과 등록금
수입에상액이 96%으로 동일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이와관련, 중앙운영위원회는 등록
금협상타결점을 찾지 못한채, 22일
등록금일방고지가 나오는 것에 대
해, 학우들에게 타당한 이유를 밝힌
후 등록금납부 거부운동을 펼칠 것
으로 밝혔다.
(95학년도 등록금 책정표)

구분	계	열	등록금 총액(원)
서울	인문·사범계	이학·체육계	1,517,500
	공학·예능계		1,760,300
			2,002,900
경주	인문·사범계	이학·체육계	1,457,900
	공학·예능계		1,690,900
	한외예 1-2-3 한외예 4		1,924,200
			2,459,200
			2,179,300

△입학금=31만4천원(백원)
△기성회비=44만9천4백원

기조실, 행정편람 발행
업무 개요 흐름도 내용등 기술

학교 행정의 표준화, 개선 및 공
기를 목적으로 학교행정에 필요한
자료와 법규 등을 묶은 '행정편람'이
지난 17일 발간됐다.
총 3백40페이지 분량으로 7백편
이 제3권 행정편람은 서울캠퍼스
중앙사무조직 업무를 중심으로 '업
무개요, 업무흐름도, 업무 내용'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직원 및 서울·경

주 각 학과와 4년제 외부 대학들에
배포된다.
행정편람을 6개월간 주도적으로
제작해 온 기획조정실(실장=황창
규·경영학)의 한 관계자는 "2년정도
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인데 시
간상의 여유가 없었다"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할것"이라고
말했다.

만해문고 직영화
원칙없이 액수협상으로 종결

지금까지 임대사업자인 만해문고
가 93년 학복위직영사업 준비로 시
작하여 공관위의 사업협상안이 결
정됨에 따라 지난 20일 직영사업
으로 되었다.
만해문고의 직영화문제는 지난
94년11월 학복위직영기회 때 결정
된 후 신학기 이전에 정상적인 서
점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준
비기간과 학교측과 맺은 계약기간
이 상충되어 그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의 필요로 협상이 제기되
었다.
처음 서점이 학교측과 맺은 계약
기간은 올 2월 말까지이나 그 기간
을 만료하고 직영으로 바꿀시에는
준비기간으로 한 학기동안 서점이

운영될 수 없어 공관위측은 서점을
조기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
라 서점은 조기인수시 발생하는 1.2
월 손해분과 시설투자비로 6천2백
만원을 요구했다. 공관위는 이 요구
액중 5천8백만원을 3차례로 나누어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1월15일 임대
만해서점은 영입이 중지되었다. 그
후 1월20일부터 28일까지의 인수인
계기간을 거쳐 직영사업의 문을 여
는 것으로 협상은 결론지어졌다.
이 협상에 있어서 드러난 원칙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으로 학복위는
"원칙을 세워 그 원칙을 고수하면
서 학교의 적절한 타협을 해야한
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뚜렷한 원
칙조차 세우지 못하고 액수협상으



분사 영진동인 축하회가 지난 20일 역대 주간교수및 분사동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렸다.

로 끝을 맺었다고 밝혔다.
관련자들은 이 협상에 대해 이후에
제기될 학내복지매장에 대한 원칙
선정의 선례가 발생하고 다른 임대
매장과의 계약에 관계가 된다는 우
려를 표명했다.
한편 백상등 나머지 임대업소에
대한 문제는 오는 27일에 있을 회
의에서 논의된다.

이사장, 송석규 제13대 본교 총장,
이창식 MBC 예술단 사무이사, 김택
근 편집기자협회 회장 등을 축하하
기 위해 지난 20일 서울 프라자호
텔에서 분사 영진 동인 축하회가
열렸다.
본교 최순열(분사 14대 주간 국
어교육)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축하연은 동인이자 본교 명예교수
인 이병주교수와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의 축하인사등 역대 주간교수
및 분사 동인 1백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본사 동인회 축하연
본사 동인인 신임 황병 문인협회

외국어,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언제까지 외국어에 끌려 다니야만 할까?
언제까지 학교에서 외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그 외국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할까?
국제화시대, 무역전쟁시대의 외국어는 전쟁의 무기와
다름 바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외국어라면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이익입니다.
"I CAN DO IT!"
25년 동안의 현장교육을 통해 한국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고안된 파고다외
국어학원의 외국어교육 프로그램과 만수무강한
세계 이음나라에서 선발된 막강 엘리트 교원이 귀하를
반드시 외국어 정상에 세울 것입니다.

영 어	
미국인 영어회화	SLE COURSE 12명 정원 1일 1시간 1년과정 / 전원 미국인교수
기초 영어회화	SIDE BY SIDE / FIFTY-FIFTY A CONVERSATION / LADO / LINE BY LINE
영어청취 어휘 / 유학·진학·취업	AFKN / TOEFL L/C / TIME TOEFL / GRE / GMAT / TOEIC

*문법, 독해, 작문, 발음교정, 청취등 국내 최고 교수진

최신 영어특강 프로그램	
INTENSIVE S.L.E. COURSE	1일 2시간 주 5회 / 각반 12명 소수정예 과학적교수법 / 최신교재 / 교수전원 미국인
INTENSIVE ENGLISH COURSE	영어만 사용, 석사학위 미국인 교수들에 의한 영어문법, 작문, 회화의 종합적 능력 완성을 위한 주 5일 교육 (1일 5시간교육) *미국대학준비 프로그램
미국 WISCONSIN 대학반	한국 파고다 → 미국 위스콘신 2-4개월(1일5시간교육) 2-4개월(1일4시간교육) 교육중 입학허가서 취득 교육중 대학입학

일 본 어	
기초 일본어 3개월 완성	동경 일본어 독해, 일본어작문
스크린 일어회화 및 청취	일본인의 생활언어를 스크린을 통해 학습
일본인 회화 초급 I · II · III	NHK 일본어
	위성방송을 통한 본격적 일본어청취

*교수 전원 일본 명문대학 석·박사출신

독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어강좌	프랑스인 불어강좌
중국어 중국어강좌	스페인어강좌
러시아인 강좌 및 모스크바대	1일 3시간 / 주 5일, 러시아인 교수 4개월 교육후 모스크바대 입학



세계 4번째로 남극점 도보탐험에 성공한 한국 남극탐험대
사진 중앙이 고인경 탐험대장(분학원장), 홍성태 대원(분학원)
참단 하이테크 시선과 명저를 빛나는 교수진이 함께하는 -
파고다외국어학원



파고다외국어학원
총로 274-4000
영도 파고다영원 빌딩 5층
입구경 3442-4000
전원 영구영역 동묘대길
신촌 362-4000
이대 전영역 7번길 5m
강남 501-4002
강남 전영역 2번길 세터빌딩

민자, 세계화 허와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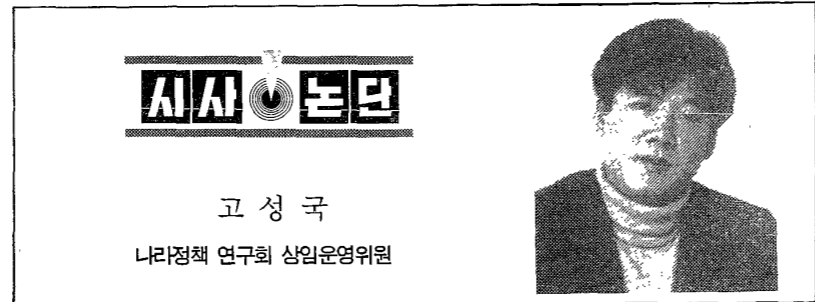
‘군부실세-개혁자’ 우열여부, 여론결정

2.7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구성된 민자당 지도부의 면면에서 필자가 우선 느끼는 것은 심각한 부조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인 당대표와 사무총장을 볼 때 특히 그렇다. 하나 화술신의 육사 14기로 5공, 6공을 거치면서 신군부의 핵심적 실세로 활동해온 이준구 대표와 6.3세대인 개혁주의자 김억봉총장은 어느모로보나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사람들이다.

이 부조화는 민자당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물난과 도저히 해소될 것 같지 않은 계보정치적 심각성을 단적으로 확인시켜준다. 비록 당의 세계화를 내걸었지만 민자당의 역량만으로는 세계화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당체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자 당대표에 개혁성과 명망성을 동시에 갖춘 원외의 비종교인사가 영입되었다면 양상은 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그런 파격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당대표는 민정계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김종필 파운을 수습하고 지리멸렬한 당조직과 범여권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민정계가 대표를 맡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당의 세계화를 위한 개혁을 내걸고 준비된 전당대회였지만 민자당은 김덕룡사무총장직외에는 별로 보여준 것이 없다. 그러나 민자당의 복잡한 계보 역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아무 것도 안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인색한 평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당의 세계화의 가치 이래 민자당이 추진한 개혁조치와 한다면 크게 두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김종필씨를 축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광역



시사 본면

고 성 국

나라정책 연구회 상임운영위원

단체장후보를 결선하는 등 민자 민주화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김종필씨를 축출한 것이다.

원내총무경선이나 시도지방장과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선도 제대로만 된다면 대단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개혁 일반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고 지연, 확연으로 이리저리 얽혀 있는 인물중심의 부당적 정치구조에 합동돼 있는 우리나라의 정당현실을 개혁하여 경쟁력 있는 체질로 바꾸는다는 의미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필자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 그 모든 제도개혁보다 김종필씨의 축출이 더 중요한 개혁적 의미를 갖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김씨를 축출했다는 것은 김씨로 상징되고 있는 지난 30여년의 군부권위주의시대를 원천적으로 청산하겠다는 문민개혁의 표징이며 3당합당의 절충적인 지역연합구조를 넘어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개혁적 의

미보다는 지역을 담보한 지분 경쟁이 김종필파동의 직접적 이유이다. 개혁의 가치 아래 축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충청권의 지역행주로 재기를 노리고 있고, 또 이런 조야한 지역주의정치가 충청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이렇듯 김종필 파동은 개혁의 명분과 계보갈등의 현실이 뒤섞여 분말이 진도된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궁극적으로 김씨의 축출이 좁게는 민자당 개혁의, 그리고 넓게는 한국정치구조 개혁의 정치적 계기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판단한다. 문제는 김씨 축출 이후의 민자당 개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때에서 필자는 재선의원에 불과한 김덕룡씨의 파격적인 사무총장 기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종필의 등용을 ‘당의 세계화 개혁은 차세대 육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발언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김종필이 민자당

개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총장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원외 개혁인사를 영입하고 지자체 후보공천을 개혁적 방향에서 추진하며 실질적인 광역단체장 경선을 진행시켜 당내 민주화를 위한 관행을 확립하는 것으로 모아질 것이다. 따라서 민자 필자의 예상대로 된다면 당의 세계화 개혁은 끝난 것이 아니라 2.7전당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구 T.K세력과 김종필씨의 자민연 등이 반민자등으로, 흐르고 있는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보수, 기득권층을 결집해 민자당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될 경우 눈 앞의 선거를 위해 당운영이 보수적으로 경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당의 세계화는 그야말로 정치적 수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세계화를 내걸고 민자당개혁을 추진했음에 상정했을 당의 구조개혁과 물갈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 이번 전당대회로 당개혁이 중점되었다고 단정지를 이유로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당개혁이 용두사미말로 이음에서 끝날지 아니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는 전적으로 민자당 내외의 정치역학의 변동추이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구는 곧 국민이론이 개혁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민자당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당개혁을 확대해 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민자당 개혁의 상당부분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등록금 협상 문제점 분석

학교 보수 - 학생회 강경...학교 '일방 고지서' 발부 대학평가 자체보고서·등록금 책정표 내용상 문제점 드러나

해 역시 학교와 학생회가 합의하고 이전과는 달리 학교측의 승낙없는 자료제시에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또다시 결렬된 '재단'과 '보수화' '맞바치기'의 문제로 등록금 협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번 등록금 협상에서 학교측은 학생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 성실히 답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학교가 예산, 대학평가가 관련 자체보고서, 등록금 책정표 등 성의있는 자료제시 이전에 내용성에 몇가지 문제점을 보였다.

첫째, 휴학·복학생을 고려하더라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산출인원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둘째, 재단전입금이나 임시수수로, 국고보조금 등 이미 확정된 부분이 있어 어서도 제시가 되지 않았다. 셋째,

김영삼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5.5%물가인상보다 훨씬 높은 10%를 물가인상률로 책정해 지출예산을 세웠다. 또한, 93년까지 임의적 투입금인 1백15억중 작년은 20억을 지출했으나 올해 10억을 예정해 학교예산을 과대하게 측정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러한 학교측의 자료제시에 대해 총학생회측은 자체적으로 분석 검토를 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등록금협상을 통해 학과통합, 공간조정 등 학교발전과 관련한 고리를 만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맞바치기'로 학교의 일방고지서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와 학생회측의 문제점보다 더욱 큰 것은 재단에 대해 이렇다할 실마리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교측은 원직상

재단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 입상교수의 임금과 건설가계정(건설 신축비용)을 현실적으로 재단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설명과 재단 문제에 대한 '우린 모른다'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다.

과연 우리의 '재단'은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올 등록금 협상은 학교당국의 보수화관 모습과 학생회의 강경한 모습 이래 93년 고지서발부의 발부의 모습으로 돌아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교와 학생회는 언제나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발전이라는 탑을 세우고 등록금 협상을 계기로 계속적인 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박주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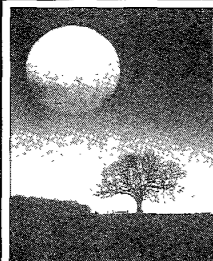


"15%인상... 대학종합평가에 합격하기 위해 교육시설설비를 확보하고 교수충원을 하기 위한 부득이한 인상률"

대학종합평가를 앞둔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15%를 선택하는 등록금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종합평가 합격=우수학교'라는 단순한 논리가 학교측의 명분이 되고 있고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본연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양적확대로만 퍼지고 있는 지금 또다시 '연중행사'인 등록금협상이 본교예산 예산보다 한달여 늦게 시작돼 등록금 고지서 발부까지 되었다.

매년 공감했던 '몇%나 아닌 어떤 내용으로 꾸러나갈 것이냐'에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울려도 유한캠퍼스는 우리의 자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연도 선진국을 꿈꿉니다

인간과 자연, 그 조화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자연은 후대까지 계승해야 할 우리의 자산 - 환경 보전을 위한 세계공동의 노력이 촉구되고 있는 지금, 이제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며 자연해법입니다. 선진국대열에 당당히 올라서고 있는 우리, 그러나 우리의 자연은 어떤지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자연은 과연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있을지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미래를 위해, 지금은 다음 세대의 자연 선진국을 설계할 때입니다.

울창한 숲은 풍요로운 상징입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물을 정화시키며 휴을 기쁨지게 하는 나무-나무는 환경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숲 1헥타르당 심어진 나무의 양(임목 축적율)은 독일과 비교해 아직 6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2차대전으로 우리와 같이 숲의 황폐화를 겪었던 영국은 정부와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풍성한 숲을 살려낸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의 공익가치는 목재자원 가치의 33배나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 볼 때 아직 우리의 숲에는 풍요로움이 아쉽습니다.



이제 자연선진국을 향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연으로부터 풍부한 혜택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물질문명-맑은 물의 원천이요 산소의 공급원이며 국토를 보전하는 등 모든 환경 정화의 근간이 되는 숲을 생각해 우리들의 자연을 선진국수준으로 올려 놓는 길은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가꾸는 마음, 바로 적극적인 실천 뿐입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풍요로운 자연을 되찾고 싶은 유한캠퍼스의 의지입니다.

유한 캠퍼스는 산림전문기술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임원협동조합에 설립, 지난 10년간 꾸준히 자연보호기금을 조성하여 국유림을 푸르게 가꾸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과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행사 등 매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자연선진국-또다른 자연사랑 캠페인 10년을 시작으로 유한캠퍼스가 앞장설 것입니다.



사설

동국인임을 잊지말자

졸업식을 맞은 모든 졸업생들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만이 있을지를 기원해 본다.

4년간의 대학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막 사회에 들어서는 졸업생들에게는 무한한 꿈이 있을 것이다. 이 사회의 동량으로 동국의 영예와 민족의 발전을 그리며 졸업을 맞이한 졸업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언제나 졸업때를 맞으면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한다. 진정한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그 새로운 출발은 자신의 작은 노력과 정성으로 그 빛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의미를 되새기며 겸손과 열정의 마음으로 졸업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졸업식을 통해 총 3천8백 62명이 동국의 품을 떠난다.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학창시절을 마감하고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우리 동국가족은 적지 않은 기대를 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동국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졸업생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항상 동국인임을 잊지 말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마음도 가져본다. 물론 졸업생 모두 잘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모두 동국의 발자취로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생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요즘 불어닥치는 세계화의 논리속에 대학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얼마못가서 동국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공공연한 추측 속에서 졸업생들의 역할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졸업생들에게 거는 동국인의 기대에 걸맞은 사회 진출을 준비해온 졸업생들의 노력에 몇가지 덧붙여 당부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 배움은 배움으로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동국인 모두는 졸업생들이 지금까지 배운 터전에서 얻은 소중한 결과물을 자신의 발전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는 졸업생들의 상이점에서 쌓은 소중한 체득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

둘째 민족의 선각자들이 설립한 동국의 이상을 가슴에 담고 조국과 민족의 이익에 앞장서며 정의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삶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이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으로서 당연한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셋째 오늘 이렇게 동학을 떠나지만 동국대학교는 졸업생 여러분의 영원한 모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모교 동국의 미래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깨에 걸려있다. 항상 동국을 잊지 말고 살아갈 길 바라며 동국은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짐들을 참된 시작을 그리고 있는 졸업생 여러분들의 어깨에 짊어 지우며 우리들은 여러분의 빛나는 졸업장앞에 다시 한번 건승을 기원해 본다.

동국만평

박현진





◇교수회는 지난달 15일 도서관 열람실에서 투표를 실시했다.

개교90주년을 앞둔 향후4년은 단편한 대학종합평가인정제, 교육시장개방과 더불어 21세기를 준비하는 역사적 전환기라는 점에서 본교의 제13대 총장선출의 중요성은 재삼 거론할 여지가 없다.

94학년도 2학기 학사보고회에서 이사장의 직선제 폐단발언으로 시작된 총장선출 방식에 대한 논란은 교수회의 선관위구성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지난 1월15일 교수회의 투표, 그에 앞서 실시된 직원대상대 책임의 투표로 선출된 송석구 조희영 후보가 재단에 선임요청되었고 이에대해 지난 달 25일 열린 재단이사회에서 송석구 후보가 선임필요로써 제13대 총장선출은 마무리 되었다.

교수회에서 2백35표를 얻고, 직원노조의 117표의 지지를 받았으며 재단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선임된 송석구교수는 현인 변천총장의 임기가 2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오는 27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제13대 총장선거 평가 및 과제

인맥·파벌선거 폐단 극복방안 불충분 노조 선거, 후보자와 대화 통로 미흡 제 주체 참여보장된 제도 마련해야

다. 14%는 모르겠다고 답한데서도 드러난다.

서울과 경주에서 실시된 1·2차유세에 약 4백여명의 교수가 참석함으로써 "교수회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기는 처음이다"고 할 정도로 총장 선거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과 열의는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선거 당일에는 총 5백3명의 유권자중 4백42명이 참석, 87.9%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나 일부에서는 표몰이식으로 동원된 인맥과 파벌에 의한 선거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선거비용은 각후보자와 교수회의 회비로 총당 선거공영제로 이뤄졌다. 90년도 선거당시는 학교당국에서 반을 지원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아직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회는 "선거비용에 대한 내역을 직선제폐단논리에 악용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



◇직원노조는 지난달 13일 서울·경주 각각 투표를 실시하여 교수회 투표일인 15일 개표했다.

다. 선거때만 반박활동하는 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수회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더불어 이순용교수회장은 "교수회에서 선출한 총장이니만큼 앞으로 공약실천과 학사행정을 감시,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직원노조(위원장=김문길·홍무과)는 조합원 1백52명을 대상으로 '민주적 총장선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찍부터 총장선거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진행했는데 높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수, 학생대표와의 3자연석회의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직원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직원노조만의 단독선거를 치를 것으로 선거투표에 매몰되는 결과를 낳았다.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후보자의 행정능력을 검증하는 기회가 많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와 대화할 어떤 공청회나 유세자리 없이 공약자료집만으로 판단한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1천5백46명이 참여했는데 커다란 의미를 지니나 '직선제사수'이상의 내용을 담보하지 못했다.

각후보자의 공약들을 분석해보면 당선되고보자는 식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허위공약이 남발되었다는 여론이 높다. 이후에 이는 검증되어질 것이며 공약사항을 지키도록 추종해내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번 제13대총장선출은 몇가지 한계가 드러난 것이 사실이나 재단의 일방적 낙점 아닌 직선제의 선례를 남겼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후 재주체의 참여를 보장할 합리적인 제도의 안착이 요구되며 그것은 지속적인 논의속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내주체에 의해 선출된 직선총장이니만큼 재단의 영향을 받지않고 소신있게 일을 추진하도록 견제해야하며 공약사항 실천을 추동해야 한다.

(김소영기자)

교수회

근래에 우리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교의 현재 위상에 대해 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비약적인 발전을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제교수들에 의해 선출된 총장에게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학교발전에 대한 공약을 통해 교수들의 지지를 받아낸 총장이니 만큼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 재단이사회에서 즉각적으로 교수회의 선출결과를 수용한 것도 공약을 통한 정책대로 교수들의 지지를 측정할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선거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고 모범된 선거였다. 임무보한 모든 교수님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한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경쟁을 했었다.

따라서 신입총장은 이들의 계획안을 검토하여 그 장점들을 수용하고 본인의 공약과 융화시켜 세부적인 발전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여론이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의 조화와 설득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교수회는 앞으로 총장이 내실 있는 학교발전에 앞장서고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협력과 질책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순용 (교수회 총회장)

직원노조

노동조합은 작년 10월에 제13대 총장

◇각계 반응

교수회, 여론 수렴하여 공약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

직원노조, 선거과정시 문제 극복 방안...새로운 제도 모색해야

총학생회, 공약실천위해 제주체와 함께 풀어나가는 총장이 되길

선출에 관한 기본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번 선거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고 모범된 선거였다. 임무보한 모든 교수님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한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경쟁을 했었다.

따라서 신입총장은 이들의 계획안을 검토하여 그 장점들을 수용하고 본인의 공약과 융화시켜 세부적인 발전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여론이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의 조화와 설득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교수회는 앞으로 총장이 내실 있는 학교발전에 앞장서고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협력과 질책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었다. 대학 구성원들이 타율화되고 개별화된 현실 속에서 "민주적" 제도를 모색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었음을 이번 과정에서 우리는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당락이라는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가운데서 노조가 내건 "민주적 총장 선출"의 명분은 분명히 실증되었음을 우리는 반성한다. 이제 당락의 부담이 덜한 시기에 동국인들은 새로운 총장선출제도의 마련을 위한 진지하고 냉철한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김문길 (서울캠퍼스 제6대 노조위원장)

지난해 총장후보자 선출의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과의 합의에 의한 민주적 총장후보선출 제도의 마련은 무산되었다. 이러한 선출과정속에서 드러난 갈등과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신입 총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앞두고 동국발전을 위한 21세

기 기획팀을 결성하여 장, 단기 학교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학내 구성원들이 화합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신입총장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김종규 (경주캠퍼스 제6대 노조위원장)

총학생회

이번 송석구 총장은 무엇보다도 교수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물론 그 과정이 조금 더 깨끗하고 공정한 정책선거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하지만 재단에 의해 2위 후보가 총장이 되었던 지난 과거에 비한다면 진일보하였다 할 것이다. 하기에 이번 총장은 더욱 더 재야할 집이 많다. 지난 4년동안 잘못했던 부분을 청산하고 동국의 도약을 이루는 첫 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각 주체들의 반목과 질시를 갈아엎고 대화합과 믿음을 일구어 가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총장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총장선거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제기했던 비현실적 공약에 대한 재검토와 제기했던 공약에 대한 차근차근 계획수립과 실현과정이 있어야 한다. 총학생회는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총장을 지켜볼 것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이고, 만의 하나라도 이전의 모습을 담보하거나 동국의 구성원들을 무용하는 행위를 진행한다면 그것에 대응하는 거침없는 비판과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그러할 때만이 동국의 발전은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국의 역사에 남는 총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신입총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동국이 퇴보와 나락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믿으며

마지막으로 일어서 해주는 총장이 아니라 함께 일을 풀어나가는 총장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 하고 싶다.

안진우

(서울캠퍼스 제27대 총학생회장)

이제 곧 제13대 총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우리학교는 곧 대학종합 평가 인정제가 실시되고 21C에는 개교 1백주년을 맞이하며 어느때 보다 큰 기대를 갖게된다. 그리고 기대가 많은만큼 많은 우리 역시 갖게 된다.

총장선을 과정에서 송석구 교수는 재정 확보, 3년 건설, 경주 자치권 보장등을 공약했던 기억이 난다.

이 모두 우리학교에 매우 중요한 과제에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과제들은 중요성 만큼이나 해결 방법과 과정 또한 중요하기에 우려 역시 갖고 있다. 그 우려는 첫째, 3캠퍼스 불교 종합병원등 막대한 재정 수급을 총장에게 기대는 안된다. 그리고 기대가 많은만큼 많은 우리 역시 갖게 된다.

총장선을 과정에서 송석구 교수는 재정 확보, 3년 건설, 경주 자치권 보장등을 공약했던 기억이 난다.

배문석

(경주캠퍼스 제12대 총학생회장)

SINCE 1961

세계로 향한 젊음을 위하여!

세계화의 도구미

시사영어학원

수많은 선배님들의 외국어 배움터였던 '과거'의 시사영어학원은 새모습, 새시대로 새롭게 태어난 '오늘'의 시사영어학원을 뛰어넘어 21세기의 도전에 동참하는 당신의 '미래'의 시사영어학원이 되었습니다.

- TOEIC
- TOEFL L·C
- AFKN News & Drama 청취반
- 미국어 HEARING
- TIME·TIME 일본
- 영자문·시네마 영어전국
- 영어회화 (한인·미인)
- WRITING SEMINAR

- 입어 문법·독해·회화
- 일본어 능력시험 대비반
- 일본인 회화·한자 독해 특강
- 러시아어 문법·독해·회화

- TOEFL·영어순회
- Korea Herald 사설
- VOCAB 22000
- 거로 VOCAB·거로 Reading
- 성문종합영어·기본영어
- MAN TO MAN 기본영어

- TOEFL 600
- GRE·GMAT
- M·A ENGLISH (대학원 진학반)
- 통역대학원반 (기초·실전)

주말특별반

대표 734-2442

종로2가 종로서적 뒤

(6면에서 이어짐)

▲채미선=재배종 감자 Solanum tuberosum L. 와 야생근연종 Solanum Commersonii의 세포 융합체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동기=유전체 공진기를 이용한 마이크로스트립 신호 다이플렉서의 구현

▲임현준=변형된 Feed Forward방식에 의한 880MHz전력증폭기의 선형화

▲박석배=마이크로스트립 선형 반사 배열 안테나에 의한 빔의 조정

▲권정익=VQ기반 영상 압축과 블럭 단위 스크램블링

▲김성철=ACK 2-패스 코드 생성기의 구현

▲나상영=메모리 셀 참조를 감소시킨 마크-플렉트 가변지 플렉션

▲송주현=데이터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검색 기법의 선정방안

▲최혁진=사용자 개입을 고려한 멀티미디어 동기화 기법

▲정명수=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무결성 표현기법

▲조경은=골격선과 원 길이 정보를 이용한 피아노 악보 인식

▲조신철=슬롯머신다중처리에서 쓰기 경신의 효율적인 구현방안

▲김정숙=비동기 원격 프로시저 호출을 이용한 분산 알고리즘 설계

▲나정성=회일 중복을 위한 개선된 그리드(Grid) 프로토콜

▲이형도=적용제어를 이용한 직접구동 모터의 위치제어에 관한 연구

▲최인걸=삼축유기질토의 공화적특성에 관한 연구

▲주용민=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압밀 침하해석의 비교연구

▲김대훈=원심력 철근콘크리트판의 외압강도 및 동결융해에 대한 내구성

▲김동모=사질토에서 다중 디스크 영커링 보편의 인발저항력에 관한연구

▲김재은=얇은 북부판의 탄소성 영역을 고려한 비선형 해석 프로그램

▲사세환=한국사회의 공간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사상적 전개를 중심으로-

▲동근욱=반복하중을 받는 합성기통의 내력에 관한연구

▲최건우=근대 건축의 선적공간개념과 공간구조분석 (르 꼬르뷔제를 중심으로)

▲이호창=정유공정폐수 처리용 Bio/UF 복합공정에 관한 연구

▲김정국=김치 젖산균의 화학분류학적 특성에 의한 동정

▲정만근=수용성 모형에서 콜레스테롤 저장산화에 대한 Erythrosine의 영향

▲박종석=비방사성 표지 및 검출법에 의한 플라즈마, UCI8 DNA의 염기서열 분석

▲정경원=김치 중의 장내 병원균 증식에 미치는 발효의 영향

▲김정욱=CIM시스템에서 기계가공과 AGV의 운영을 위한 동적 작업배정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

▲박대국=시뮬레이터 어닐링 기법을 이용한 FMS의 기계제-부품군 형성에 관한 연구

▲김정욱=보종직기타 수침이 대피부 압박으로 유발된 백서의 근손상에 미치는 영향

▲김길섭=삼산화인 대뇌피질 microsome분획에서 Na-K-ATPase활성에 미치는 영향

▲김정현=골반염증성질환을 유발하는 Neisseria gonorrhoeae 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한약재 탐색에 관한 연구

▲윤종원=평간개울지렁이가 어혈형태 모형에 미치는 영향

▲오연환=실험적 뇌허혈-재관류 상태하에 수구용 전철 자극이 혈압, 국소뇌 혈류량 및 뇌부종 형성에 미치는 영향

▲임재연=산진기 검역 유발 세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한약재 탐색에 관한 연구

▲김정숙=제조업체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요법의 원인에 관한 조사 연구

▲이예봉=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흡인 기관지 확장제 사용후의 기도반응 관정에 관한 연구

▲김성순=구조도 가공업체의 구조도 분진 폭포에 의한 구조도폐증 발생에 관한 조사

▲전일수=취뇌의 postsynaptic density분획에 존재하는 phosphotyrosine 함유 단백질의 검출

▲박주래=Type II Calcium/Calmodulin-Dependent Protein Kinase에 의한 N-methyl-D-aspartate 수용체 Subunit 2B의 인산화

<불교대학원>

▲이승연=한국사원에서의 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김용기=연산제의 구성과 그 신앙적 의의

▲김선욱=거택보호 노인들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김병지=불교의 경제사상

▲백선희=한국불교 교단의 복지문제에 대한 현황과 미래

▲이화진=신라 화랑도의 연구

▲조근석=불교의 복지사상과 실천방법에 관한 연구

▲문정선=불교에서 보는 자원봉사관

<행정대학원>

▲임병건=한국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노사분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오장환=장애인 복지서비스정책의 개선방안과 관련 연구-서비스 전달체제와 직업재활정책을 중심으로-

▲안동호=발전적 행정인의 가치관의 변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홍근=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재외수입에 관한 고찰

▲이정식=군사기관 지휘유형에 관한 연구-육군 하사관과 사병의 관계-

▲박광호=한국군 장교의 전문직업적 여건에 관한 연구

▲배영근=군인력의 동기부여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육군항공조종사를 대상으로-

▲김병철=정책자문기관의 기능에 관한 연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례분석-

▲김승민=한국의 북방외교의 장애인보의식에 관한 연구

▲오종근=공무원의 근무성실평가연령에 관한 연구-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류호봉=정부간 기능배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우진=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영세=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안성군 의회를 중심으로-

▲정대용=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기업문화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통신을 중심으로-

▲이재일=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연구-창원시와 마산시의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신동균=한국 관광농업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배일권=군 홍보활동 개선에 관한 연구

▲권효선=북한 핵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이종훈=중국의 개혁·개방이 북한의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성식=남북한 사회통합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철=남북한 군비축소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형=중국의 '군 현대화' 계획과 해군전략에 관한 연구

▲허성=중국의 대외정책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박순=예비군 정신전력 강화방안 연구

구

▲이근범=지방자치제하에서 지역방위제도 연구

▲박병규=남·북한 통일정책에 관한 비교연구-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전우삼=한국의 전쟁지도체제에 관한 연구

▲양해정=한국의 군사교육 체계 발전방안 연구-장교 교육을 중심으로-

▲배문헌=한반도 군비통제 방안에 관한 연구-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김영민=한반도 군비통제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현진=한국의 대북한 역제전략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근=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김영식=군 정선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삼규=한국 규제 관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안종태=한국 컴퓨터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김해경=한국경찰의 교육현황에 관한 연구-교과과정 중심을 중심으로-

▲김남철=최근 테러리즘의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박은주=요인 테러리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백현진=한국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관계정립에 관한 고찰

▲이현경=한국 마약류사범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문종식='거짓말 탐지기'의 법적지위 및 운용의 효율과 방안에 관한 연구

▲유석중=신용카드의 법적문제점에 관한 고찰-카드 거래를 중심으로-

▲박진동=농민후계자의 생활실태 분석과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김형진=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라자 요가를 중심으로-

▲전경애=요보호모자세대에 대한 지원시책과 개선방안

▲박태희=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성북구 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전인규=어린이집의 급식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이병선=한국교회 복지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호경=가족여가활동에 관한 연구-서울 YMCA 성인회원을 중심으로-

▲박용기=한국 노인복지법의 비판적 분석 및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법과 시책의 괴리를 중심으로-

▲김갑진=한국 의료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유종복=의료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제 개선에 관한 연구

<경영대학원>

▲최형준=육군장교진급제도에 관한 통사적 고찰-영관장교를 중심으로-

▲권오철=중소기업의 창업인 이직에 관한 연구-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신동원=직무특성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하석=중공업노동기부여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창훈=백화점상품권 활용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서울 강남지역의 공무원 및 회사를 중심으로-

▲정광영=승용차의 효과적인 광고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소형과 대형승용차 광고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전재우=상표이미지와 자아이미지가 승용차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엘란트라, 에스페로, 세피아를 중심으로-

▲강오순=고객만족도(CSI)에 관한 실증적 연구-중저가 의무 판매점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김현희=회장품의 상표에도도에 관한 연구-기초화장품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배상봉=공익광고가 청소년의 의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TV 광고 중심적으로-

▲이기영=고철 이장파본

▲정훈성=김소월 시에 투영된 비극적 삶의 인식

▲이희모=재민식 소설 연구-작가의 현실인식상과 문체를 중심으로-

▲김승동=현대국어 부정문의 의미해석에 관한 연구-'안-지-않' 부정문을 중심으로-

▲주복식=설악산지의 지리적 연구

▲김종현=한국의 기능지역별 중등학교 환경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현용=남북한 역사교과서의 비교 연구-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근대사 서술을 중심으로-

▲노병환=백제의 발전과정과 대외관계 연구

▲정유섭=한국과 북한의 수학 교과서 비교 연구

▲박홍용=소집단 학습을 통한 수학과 학습 부진아의 지도연구

▲김영국=발달학습을 통한 수학과 학습지도에 관한 연구

▲김미미=발달학습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신갑섭=문제설정교수-학습에 관한 연구-Meta 인지활동을 중심으로-

▲류희관=문제설정을 이용한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진단 평가와 형성평가를 중심으로

▲이중명=수학적적각자 원인과 처방에 관한 연구

▲남상돈=소집단 협력학습을 통한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최경애=수학 실험실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고찰

▲김현정=수학적 사고방식에 관한 연구

▲최원식=롤즈의 정의론 연구-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중심으로-

▲권영택=인도불교의 성립에 관한 연구

▲고석순=철학교육의 목표와 교수법

▲권오욱=마르크 사갈 회화의 시적 의미 연구

▲이해진=르네상스의 조형예술에 관한 고찰

▲김현권=추상화를 통해서 본 한국현대 미술의 발전과정 (해방이후-현재까지)

▲서준성=Postmodernism의 한국적 수용에 관한 연구

▲강홍석=누보 레알리즘에 있어서 오브제에 관한 연구

▲최성훈=한국불교회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고려불화를 중심으로)

▲최성규=안방 이치호의 불화세계

▲곽도희=남종문인화의 고찰과 전개

▲이상기=동양회화의 필선 연구

▲이두정=생활공간을 위한 조각의 기능과 역할

▲강성원=학교미술교육의 현황과 그 방향성에 관한 연구-중등학교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표찬용=20세기 초기 채색조각과 조형적 특성

▲류문호=AIDS예방을 위한 사회체육의 기여방안에 관한 연구

▲조창호=결과의 지식(KR)이 골프퍼팅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주재영=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최정현=레슬링 선수의 심판관정에 관한 연구-국대대학 선수를 중심으로-

▲박상복=서법 조종사에 관한 연구

▲장홍현=에틸렌 관련 화합물 및 항상화제들이 절화장미(Rosa hybrida L.cv. Mary Devor)에 미치는 영향

▲이희분=서울지역 대학생의 점심식사 실태에 관한 연구

▲이전호=중학교 업무의 종합적인 전산화 방안

▲김영현=HYPERTEXT를 이용한 BASIC언어 교수법의 설계 및 구현

▲최수도=한양선사의 불교교육 사상 연구

▲이화주=법학경의 교육사상연구-이

의 교화관

▲김정숙=송강문화 형성의 배경고

▲이희모=재민식 소설 연구-작가의 현실인식상과 문체를 중심으로-

▲김승동=현대국어 부정문의 의미해석에 관한 연구-'안-지-않' 부정문을 중심으로-

▲주복식=설악산지의 지리적 연구

▲김종현=한국의 기능지역별 중등학교 환경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현용=남북한 역사교과서의 비교 연구-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근대사 서술을 중심으로-

▲노병환=백제의 발전과정과 대외관계 연구

▲정유섭=한국과 북한의 수학 교과서 비교 연구

▲박홍용=소집단 학습을 통한 수학과 학습 부진아의 지도연구

▲김영국=발달학습을 통한 수학과 학습지도에 관한 연구

▲김미미=발달학습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신갑섭=문제설정교수-학습에 관한 연구-Meta 인지활동을 중심으로-

▲류희관=문제설정을 이용한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진단 평가와 형성평가를 중심으로

▲이중명=수학적적각자 원인과 처방에 관한 연구

▲남상돈=소집단 협력학습을 통한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최경애=수학 실험실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고찰

▲김현정=수학적 사고방식에 관한 연구

▲최원식=롤즈의 정의론 연구-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중심으로-

▲권영택=인도불교의 성립에 관한 연구

▲고석순=철학교육의 목표와 교수법

▲권오욱=마르크 사갈 회화의 시적 의미 연구

▲이해진=르네상스의 조형예술에 관한 고찰

▲김현권=추상화를 통해서 본 한국현대 미술의 발전과정 (해방이후-현재까지)

▲서준성=Postmodernism의 한국적 수용에 관한 연구

▲강홍석=누보 레알리즘에 있어서 오브제에 관한 연구

▲최성훈=한국불교회화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고려불화를 중심으로)

▲최성규=안방 이치호의 불화세계

▲곽도희=남종문인화의 고찰과 전개

▲이상기=동양회화의 필선 연구

▲이두정=생활공간을 위한 조각의 기능과 역할

▲강성원=학교미술교육의 현황과 그 방향성에 관한 연구-중등학교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표찬용=20세기 초기 채색조각과 조형적 특성

▲류문호=AIDS예방을 위한 사회체육의 기여방안에 관한 연구

▲조창호=결과의 지식(KR)이 골프퍼팅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주재영=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최정현=레슬링 선수의 심판관정에 관한 연구-국대대학 선수를 중심으로-

▲박상복=서법 조종사에 관한 연구

▲장홍현=에틸렌 관련 화합물 및 항상화제들이 절화장미(Rosa hybrida L.cv. Mary Devor)에 미치는 영향

▲이희분=서울지역 대학생의 점심식사 실태에 관한 연구

▲이전호=중학교 업무의 종합적인 전산화 방안

▲김영현=HYPERTEXT를 이용한 BASIC언어 교수법의 설계 및 구현

▲최수도=한양선사의 불교교육 사상 연구

▲이화주=법학경의 교육사상연구-이

상적 교사상의 모색-

▲원영민=승가의 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욱여=S Freud 무의식과 아로아식의 비교연구-불교적 상담의 이론적 기초를 위하여-

<정보산업대학원>

▲안상호=취업가이드 전문가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대학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백형모=효율적인 중간관리자 경영정보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

▲황현노=산업기술정보 전달매체로서의 CD-ROM활용에 관한 연구-컴퓨터를 이용한 인력 훈련 체계를 중심으로-

▲홍배성=우리나라 행정전신화의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제2차 행정전신화 사업을 중심으로-

▲최형태=회사 DB를 통한 연구기록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홍두식=고객만족경영을 위한 고객만족정보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황희희=불교경전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이론적 분석-차별군 모델을 이용한 변인해석을 중심으로-

▲노재신=유아용 전자출판물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병희=개회기 잡지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신화성=시간영역 유한차분법 계산을 위한 데이터 입력방법의 개선

<산업기술대학원>

▲김명식=평균값 차이데이터를 이용한 JPEG영상 압축

▲송은호=무선호출이 타 통신망에 영향을 주는 장애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이승철=교과주변의 세공심도 신장에 관한 연구(한남대학교의 교각을 중심으로)

▲김희남=선단을 보강한 SIPالمل목의 지역 개선에 관한 연구

▲구재근=류동화 콘크리트의 시공성에 관한 연구

▲김성재=추거건축 감리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구조

▲김중환=국내 업무용 마가린의 품질 특성에 관한 계절적 변동

▲송산문=물적 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중화철강을 중심으로)

▲이인진=상업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재경=중소기업의 ISO9000 인증 획득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방향

▲최도희=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중요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송준호=양배추의 위험병 저항성 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 대학원>

▲회병기=건축공사 감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배영식=지방의회 예산심의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경상북도 의회를 중심으로-

▲이민미=지방교육재정의 배분에 관한 연구-경북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김정욱=중소기업의 물류합리화에 관한 연구-경주,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오창석=한국 산업 안전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포항지역 철강제조업을 중심으로-

▲김형기=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

▲정용식=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행태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경주군을 중심으로-

▲장지필=외래환자의 의료이용행태에 관한 고찰-경주시와 포항시의 각 병원을 중심으로-

(이상 293명)

일반휴학원접수

'94학년도 제2학기 일반휴학원을 아래와 같이 접수함.

아 래

1. 접수기간: '95. 3. 2(목)~3. 6(월)
2. 접수장소: 학적과
3. 대 상 자: '95. 2월말 현재 재학생으로서 가사 또는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원하는 자.
4. 구비서류: 일반휴학원(소정양식, 보호자 연서요)
5. 일반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6. 일반휴학기간 만료후 복학치 않는자는 휴학기간만료 제적됨.

교무처장

복학·재입학원 접수

'95학년도 제1학기 복학·재입학원을 아래와 같이 접수함.

아 래

1. 복학원서 접수기간: '95. 2. 22(수)~2. 24(금)
2. 재입학원서 접수기간: '95. 2. 27(월)~2. 28(화)
3. 접수장소: 학적과
4. 구비서류: 가. 일반복학자-복학원서 1부.
나. 군복학자-1)복학원서 1부.
2)주민등록초본 1부.
3)전역예정증명서 1부.
('95. 3. 31이내 전역예정자)

교무처장

근로장학생 선발

1995학년도 제1학기 근로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지원자격: 가. 2·3학년 재학생으로 성적이 양호하고 학비조달이 어려운자
나. 주당2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자
 2. 접수기간: '95. 2. 22(수)~2. 23(목)
 3. 면 접 일: '95. 2. 24(금)
 4. 발 표: '95. 2. 28(화)
 5. 지원서 배부 및 접수처: 본교 장학과
 6. 근무부서: 도서관 전자계산소 비상계획과 학적과 외국어교육원 우체국 계산고시학과 여학생부처장실 이과대전산실 경상대전산실 공과대전산실 이부대교학과 취업자료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학과(☎3050~3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처장

1995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 프로파일



▲박경준 (법고대학 불교학과 전임강사)
·77년 본교 불교학과 졸업
·83년 본교 대학원 석사학위 (문학석사) 취득
·93년 본교대학원 박사학위 (철학박사) 취득
·현재 본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
·불교사회상사사 전공



▲장애순 (법고대학 불교학과 전임강사)
·79년 운문사 비구니 전문강원 대교과 졸업
·85년 일본 화원대학 불교학과 졸업
·87년 경도불교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문학석사) 취득
·93년 경도불교대학 대학원 박사학위 (문학박사) 취득
·중국 불교사상사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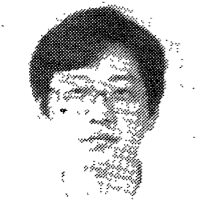
▲황중연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83년 본교 문리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85년 본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문학석사) 취득
·92년 본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문학박사) 취득
·현재 본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현대소설 전공



▲박명관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전임강사)
·87년 본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
·89년 본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 (문학석사) 취득
·94년 미국 켄네티컷 주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언어학박사) 취득
·영어와 형태론 전공



▲이주성 (이과대학 수학과 전임강사)
·81년 본교 문리대학 수학과 졸업
·83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이학석사) 취득
·93년 플로리다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이학박사) 취득
·현재 본교 이과대학 수학과 강사
·위상수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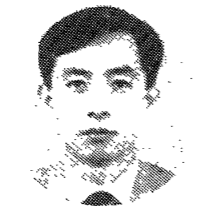


▲이건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임강사)
·77년 서울대학교 자연대 수학과 졸업
·82년 미국 Rutgers대학 사회학과 석사과정 수료
·94년 미국 하버드대학 사회학과 박사학위 취득
·산업사회학 전공



▲곽노성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
·78년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8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수료
·91년 미국 텍사스-오스틴 대학 박사학위 (경제학박사) 취득
·국제경제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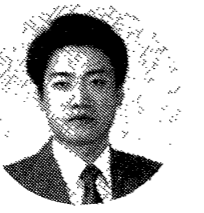
▲박영석 (경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85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8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재무학석사
·90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재무학박사
·경영학 재무관리 전공



▲유석천 (경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77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업교육학과 졸업
·84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경영학석사) 취득
·89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학위 (경영학박사) 취득
·생산관리 전공



▲방세운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전임강사)
·81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83년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취득
·9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박사학위 취득
·기계공학법 전공



▲김광복 (예술대학 미술학과 전임강사)
·8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9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조소과 졸업
·조각 전공



▲이창희 (경상대학 회계학과 전임강사)
·85년 본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졸업

·87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91년 미국 하버드대학 석사학위 (법학석사) 취득
·94년 미국 하버드대학 박사학위 (법학박사) 취득
·세법 및 세무회계 전공



▲김준태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전임강사)
·86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 졸업
·90년 남부 캘리포니아대학 석사학위 (공학석사) 취득
·93년 남부 캘리포니아대학 박사학위 (공학박사) 취득
·컴퓨터공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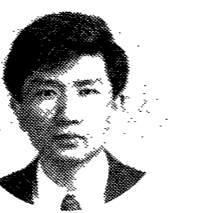
▲이상일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전임강사)
·82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84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학위 (공학석사) 취득
·91년 스탠포드 대학 박사학위 (공학박사) 취득
·수리 및 수문 전공



▲조정식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80년 본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86년 일본 경도대학 공학연구과 공학수사 취득
·92년 일본 경도대학 공학연구과 공학박사 취득
·건축이론 및 설계 전공



▲양태웅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부교수)
·77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81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산업공학과 석사학위 취득
·82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산업공학과 박사학위 취득
·산업공학 수리계획론 전공



▲박준연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조교수)
·82년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84년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 산업공학과 석사학위 취득
·91년 미국 미시건 대학 산업공학과 박사학위 취득
·제조기술 및 설계 전공



▲박민연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조교수)
·81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과 졸업
·83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석사학위 취득
·84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사학위 취득
·89년 버지니아 공과대학 기계공학박사학위 취득
·동역학 (제어) 전공



▲김동호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전임강사)
·89년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94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졸업
·현재 본교 부속 인천한방병원 임상연구원



▲박상진 (불교문화대학 국악과 전임강사)
·77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90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 석사학위 취득
·불교음악 전공



▲김진재 (인문과학대학 국사학과 전임강사)
·83년 본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졸업
·88년 본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문학석사) 취득
·95년 본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문학박사) 취득
·한국현대사 전공



▲조영석 (자연과학대학 전자계산학과 전임강사)
·78년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88년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석사학위 취득
·94년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전자계산학과 박사학위 취득
·전산화 (소프트웨어공학) 전공



▲김세곤 (불교문화대학 불교이동학과 전임강사)
·81년 본교 법과 졸업
·88년 일본 천엽국립대학 대학원 교육학 연구과 석사학위 취득
·90년 일본 쓰쿠바 국립대학 대학원 교육학 연구과 석사학위 취득
·교육심리 및 아동연구 방법론 전공



▲최원상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전임강사)
·79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식품공학과 졸업
·82년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과 석사학위 (이학석사) 취득
·Univ. of Alabama at Birmingham 미생물학과 박사학위 (이학박사) 취득
·현재 제일제당주식회사 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
·세포생물학 전공



▲이민석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85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88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석사학위 (의학석사) 취득
·93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학위 (의학박사) 취득
·산부인과학 전공



▲안열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88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91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의학석사) 취득
·94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의학박사) 취득
·안과 전공



▲김문수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89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94년 경북대학교 의학과 대학원



▲오형호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87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91년 본교 포항병원 인턴과정 수료
·현재 본교 부속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근무 중



▲황보근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86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경북대 병원 인턴 수료
·현재 대구보훈병원 이비인후과에 재직



▲최병순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8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과 졸업
·86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보건학석사) 취득
·91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예방의학 전공



▲이종문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84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92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94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성형외과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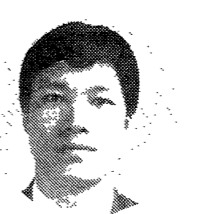
▲정은욱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88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90년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졸업
·94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
·해부학 전공



▲김길석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88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89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석사학위 (의학석사) 취득
·94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학위 (의학박사) 취득
·안과 전공



▲조용래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88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89년 대구 파티마 병원 이비인후과 레지던트 과정 수료
·92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수료
·이비인후과 전공



▲손형규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87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88년 경북대 부속병원 인턴과정 수료
·90년 경북의대 대학원 졸업
·92년 경북의대 부속병원 레지던트 과정 수료



▲이동석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87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88년 경북대학병원 인턴 수료
·90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
·91년 경북대학병원 소아과 전문의 과정 수료

교수)
·8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89년 시카고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91년 시카고대학 대학원 수학과 박사학위 취득
·93년 시카고대학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전공



▲목진호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85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90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신경외과학 졸업
·92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김길석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88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89년 경북대학병원 인턴과정 수료
·91년 경북대학교 의학석사 학위 취득
·92년 경북대학병원 안과 레지던트 과정 수료



▲김기호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83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87년 경북대학병원 인턴 수료
·90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졸업
·90년 경북대학병원 소아과 레지던트 수료



▲이동석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87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88년 경북대학병원 인턴 수료
·90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
·91년 경북대학병원 소아과 전문의 과정 수료



▲이준희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86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87년 대구 파티마병원 인턴 수료
·90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
·91년 대구 파티마병원 일반의과 레지던트 과정 수료

(이상 41명)

퇴임교수 인터뷰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얕은 물은 잔들만 만나도 소란스러운데
큰물은 깊어서 소리가 없다
그대 오늘은 또 얼마나 소리치며 흘러갔는가
굽이 많은 이 세상의 시냇가 여울을



◆김복선(영문학)교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만 그 끝이 허허로움이 아니라면...”

요즘은 어렵도 없는 말이라지만, 시냇가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47년, 동국대학교에 입학하고 강단에 서면서 동국이 변하는 모습을 단번에 지켜본 노교수의 지상강의 시간이다.

퇴임을 맞게된 김복선(영문학)교수는 1948년, 본교가 해방전국학교에서 동국대학교로 승격된 이후 입학했다.

“그시절엔 연전(연세대), 해전(본교), 보전(고려대)으로 손꼽혔다”라며 자신의 신입생시절을 회상한다.

이제 대한 김교수의 평해 해설. 재단, 교수, 학생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인입한 매너리즘에 빠져든 때문이라고.

김교수는 19C영국소설과 영문학사를 전공했다. 작가보다는 작품을 중시한다는 그는 ‘탐슨’ ‘제스터브리지’의 시장 ‘카니사조프의 형제’를 추천도서 1호로 정하고 있다.

학자로서의 외길을 걷는 고충에서 그가 찾은 신조는 세속적 성취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자는 것.

“어떤 삶이 올바른 것인가를 항상 되뇌인다는 그는 학문과 생활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학문도 역시 사람을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김교수가 재직교수로서 마지막으로 대한 신세대 94학번들을 보는 눈은 사뭇 사려깊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다, 신세대라 해서 옛날 학생들과 본질적인 측면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 김교수가 인터뷰중 계속 강조한 말이다. 헤아려 볼수록 범위가 넓어지는 듯 하다. 재단은 학교경영의 주체로, 총장은 행정의 주체로, 교수는 연구의 주체로, 학생은 배움의 주체로... 이야기의 처음에 꺼냈던, 동국의 옛모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모양이다.

“학생들이, 나서야 할때 우뚝 선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모두를 통찰할때 말이야”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지난해 학생회에 대해 4.19를 생생히 기억하는 김교수의 평이다.

퇴임후에도 계속 학생들을 보고 싶다고, 명예교수로 다시 강의를 한다는 김교수지만 ‘회자정리’라는 말은 잊지 않고 있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지만, 그 끝이 허허로움이 아니라면...”

그가 바라는 ‘동국충흥’, 이것이 한낱 허허로운 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국의 모든 사람의 그것이라 믿는다.

(이유리 기자)

“사회생활 잘하는 제자 볼때 기뻐”

김포공항 다이내스름, 탁자위의 굳은 커피 자국이 남아 있는 빈 종이컵이 최덕희(수학)교수가 퇴임에 있었던 시간의 길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퇴임에 이른 지금 최교수는 창가에 앉아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자연현상중 일부일 뿐이야 사람이 태어나 직업을 가지고 세월이 흐르면 그 직업에서 물러나는 것. 당연한 일이지”라며 담담하게 말하던 최덕희 교수는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더 우수한 제자가 맡게 돼 기뻐하며 미소를 짓는다.

최교수는 94년을 끝으로 27년 6개월동안 지내왔던 ‘동국’이라는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발을 옮긴다.

요즘 바쁘게 지낸다는 그는 ‘C programming language’와 ‘멀티미디어’를 내년 봄 완성을 목표로 저술작업에 한창이다.

또한 컴퓨터 통신도 좋아해 하이텔은 물론 각종 통신에 가입해 있어 혼자있을때 각 통신의 노인방을 애용한다고.

5, 6급 시절 휴교령이 내려졌을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안타깝다는 그는 “학생들이 공부에 좀더 매진했으면...”이라는 혼자말로 지나간 기억들을 되뇌인다.

수학과의 경우 “옛날과 비교하면 교수도 4배나 늘었고 학생들도 두 배나 늘었고 가장 기본일은 제



◆최덕희(수학)교수

관이 뚜렷하고 우수하다”며 “이런 학교에 남아 명예교수라도 하고 싶다”는 최교수는 퇴임에 대한 아쉬움의 뜻을 비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최덕희 교수.

그는 모든 운동경기종류 특히 야구와 아메리칸 풋볼을 즐겨 본다. 또 5년동안 1주일에 2~3번 집근처 안양공설운동장의 수영장에 가는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그는 “계절마다 매일은 운동한다”며 빙그레 웃어 보인다.

3년전에 당뇨병에 걸린 이후로 더욱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 최덕희교수는 발병이후, 하루에 2각씩이나 피우던 담배도 끊었다.

여느 스승처럼 가장 기본일은 제

자 사회에 나가 잘 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그는 자신이 주제를 본 제자가 가정생활을 잘 해나감에도 기쁘다고 덧붙이며, 오는 3월에도 주례가 있다는 귀뜸이다.

이후에 세계곳곳을 다니고 싶다는 최교수는 여행도 좋아해 재직기간중 단체로 개인이든 기회만 있으면 여행을 다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후배교수님들은 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더욱 더 열심히 배우길 바란다”고 최덕희 교수는 당부의 말을 전한다.

최교수의 새로운 삶의 터전은 어디일까?를 생각하며 탁자위의 빈 종이컵 두개를 뒤로하고 자리를 일어섰다.

(박대용 기자)

“중국 왕래하며 농촌 개발할 터”



◆이병동(생명자원경제학)교수

문을 열고 들어섰을때 눈에 띄게 들어온 것은 싱싱하게 자라 색깔을 자랑하는 화분들. 그리고 이병동(생명자원경제학)교수였다.

“인사할 것도 없지 그냥...” 말을 흐리며 눈가에 웃음을 띄우는 이교수는 33년간 풀타이 오던 교직을 떠나려니 아쉬움이 남는가 보다.

한편 농학도는 영원한 농학도라 했는가. 퇴임후 중국을 왕래하면서 중앙정부자문으로 그 곳의 뒤떨어진 농촌을 개발하겠다고 다부진 확신을 보인다.

아직까지는 젊음이에 못지않게 힘이 넘친다는 이교수는 여전히 새벽녘을 다니며 하루 계획을 세운다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보화 시대로 돌입하니 우리 대학도 거기에 발맞춰 인력 개발을 해야 하지만 “경쟁을 중시한 내거지 첨단 과학에만 관심을 가져서 어른이나 어린이나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친다.

이교수는 강의 시간전에 ‘논어’, ‘맹자’에서 삶에 도움이 되는 구절을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친다.

인간의 본질적 지식·가치관을 갖도록 심혈을 기울인다는 교수는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君子無的爭”라고 하던 말이 위에 쓴다.

50·60살 먹은 제자들이 인사드리러 오면, 여전히 그 제자들을 앞에 두고 동양고전을 가르친다며 웃을

을 짓는다.

94년의 가난한 농가 출신으로 자라나며 농업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농과대를 선택한 이교수는 학문의 길을 가면서도 “이론은 현실과 일치해야 한다는 의지로 살아왔다.”

70년부터 15년간 학생들과 농촌 개발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우리 농촌 개발에 조그만 도움이 된 것이 가장 뿌듯했다고 하면서 회상에 잠긴다.

“이론과 현실의 조화”와 같이 세계의 모든 것은 조화를 이뤄야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연거푸 강조한다.

과 발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교수는 학생을 몸과 마음이 일치하여 가르쳐야 하고 대학은 교수 학생들에게 불편없이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들은 학생답게 행동하는, 이 세부분야에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작년 과교수채용문제를 떠올리듯 한숨을 쉰다.

학생들에게 한문씩의 편지를 부치는 자성함을 보이는 이교수는 “勤勉自修成德之本”이라는 당부를 한다.

퇴임을 맞는 노교수에게서 느껴지는 느낌이 그가 기르는 화초의 푸르름에 가깝다고 하면 너무 지나칠까?

(홍)

달 하나 전방에

백정, 정육점 주인, 등심구이



“모래시계”가 장안에 지가 아닌 전 기값을 올렸다. 그중에 광주 민주화 향정 장면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고 한다. 나는 물론 보지 않았다. 이 연속극 화면의 조작성 허구성이 옛날 보았던 다큐멘타리의 흑백화면이 던져준 담백한 비극성을 오히려 훼손할까 두려워하였다.

대신 백정 피가 툭툭 떨어질듯한 등심 한 덩어리를 사다가 으름에 올려 놓고 구워 먹는다. 나는 그 고기 덩어리가 소에서 떨어져 나온 살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 살점을 점점 부풀려 나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한 마리 소를 연상하고 싶지 않다. 더욱더 하기 싫은 연상은 도살장에서 백정이 도끼로 그 소의 정수리를 강타하는 장면이다. 그 순간 소의 호소하는 듯 울리는 커다란 눈물물은 정말 피하고 싶은 부분이다. 그리고 눈을 딱 감고 이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나의 두서없고 철없는 마음을 저주하며 고기 한 쪽을 베어서는 포크로 찍어 내 입으로 가져 갈 것이다. 그리고 허술하게 누아 내리는 감칠맛을 즐길 것이다. 그 맛 어느 구석에도 백정의 냄새는 풍기지 않았다. 정말 다행이었다. 그리고 내가 백정이 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음을 누군가에게 감사해하며 무서히 식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다. 아무래도 그 철없는 연상이 문제였던 내내 거북한 속으로 잠을 설치야 했다. 도대체 소고기를 먹을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도끼를 들고 살아있는 소와 마주쳐서 그의 애타는 눈물을 응시하면서 마침내 소를 죽여 먹고 일격을 가한 경험이 있어야만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게 아닐까? 물론 그런 상황이 오면 소고기를 먹는 즐거움을 포기했으면 됐지 도끼를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야말로 정말 위선자가 아닌가? 남들이 저지른 잔인한 일의 결과를 자기는 정말 인과는 무관한 사람처럼 하얀 법건을 묶어 두르고 자비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즐겨도 되는가? 이거야말로 위선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잔학한 행위가 아닌가?

백보 양보하여 소고기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눈을 딱 감고 먹을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런데 정말 백해무익한(물론 자기들끼리 백익무해하겠지만) 도살이 저질러졌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 고기의 소비자가 되었다면, 물론 우리 대부분은 소비자가 아닌 사실을 부인하고 다만 냉소적 방관자였다는 점을 감별하겠지만, 그러나 그 방관은 역사사회적 맥락에서 무조건 아니라 오히려 반조죄에 해당할 것이다. 광주 향정의 경우 그러하다. 그 도살의 백정은 아직 살아있고 정육점 주인도 버젓이 살아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도 소비자는 아니었다는 말만 여태까지 되풀이하고 있을 따름이다.

황 훈 성 문화대 영문과 교수

문화단신

새책 소개

◆반야의 산비탈 물소리... 시작생 활 40년째인 본교동문 합승단 시인이 투병이후 9번째 내놓은 시집이다. 순수시 정신으로 시에 의지해 살아가는 시인의 맑은 영혼이 그려져 있다. 부리시선/4천5백원

◆외발양 해치의 크레상스... 책 제목이 외발양 가진 양 해치가 바르지 못한 자를 빨로 가려낸다는 전설을 담고 있다. 서양의 정의의 여신 데미스에 의해 밀려났던 동양의 해치를 통해 동양의 법정신을 찾고 있는 책으로 본교 손성(법학)교수

가 퍼냈다. 도서출판 화동/7천원

◆시네-페미니즘. 대중영화 꼼꼼히 읽기...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방식과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쳐온 시네-페미니즘을 이야기한 책이다. 양들의 침묵, 벨마와 루이스 등에 대한 페미니즘 독해가 실려있다. 김소영 책임편집/8천5백원

영화

◆낮은 목소리-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가 됐던 한국여성들의 아픔을 그렸다. 국내 생존한 사람과 중국에서 미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담은 기록 영화. 보일 제작

언어로! 세계로!
영국편
Everybody's talking about...
영일중불독
청문외국어학원
중로2가 종로서적빌 TEL. 738-5151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학계에 열명 인파의 학생만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시켜준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 실력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면 회원 할 수 있는 곳.
신생은 모두 자격있는 사람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귀어 돌만한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인 곳.
돌아가기 좀 힘들지만 허전지점 와서 보게되면 좀 더 멀리 연락하면 순서와 영어 수중에 따라 공평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잇속 때문에 학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재단의 연구사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당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140기 수강생모집
●개 강: 1995. 3. 6
●강 사 전: NATIVE SPEAKER
●강의시간: 1일75분 주5일
●반 편 상: 8~13명씩 7단계
●미국·영국·일본·한국어학원수 상담
언어교육 연구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호텔빌 737-4641(대)

공개강의
일반과목: AFKN News, TOEIC중합, 아카데미 TOEFL, L/C, 영작문, Vocabulary, 영어실력기초, KH 사설·TIME, 한인회화반 (side by side), 일본어 (문법, 회화, 시험대비반), 중국어
특수과목: 외대통역대학원입시반 (영어, 불어, 일어), TOEFL중합반, TOEIC중합반, 주부영어회화반, 일본유학반
일 시: 일반과목: 95. 3. 2(목), 08시, 12시, 6시 (3회)
특수과목: 95. 3. 2(목), PM 2시-4시 (1회)
장 소: 을지로학원
세계화의 길잡이 - 35년 전통의 명문학원
The Korea Herald 학원·어학원
개강: 3월 3일
외대통역대학원 합격을 최고! 내외국인 유명강사 60명 열강!!
관공서, 기업체임직원 외국어 위탁교육 및 입사, 승진, 능력평가시험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영어·일어 文法·讀解·會話
●英語會話 - 한국인반, 미국인반 (초급, 중급, 고급)
●일본영어 - 영어실력기초, 영작문, VOCABULARY
●AFKN뉴스반, L/C(청취)반, 아카데미TOEFL, TOEFL, TOEIC중합
●時事會話 - 코리아헤럴드 社説, TIME
●日語文法·讀解·會話 - 초급, 중급, 고급, 일본인 회화반
●통역대학원 입시반 (영어, 일어, 불어)
특수반
영어통역 가이드반/주부영어회화 교실
일본유학반/주말(토) 특수반/ TOEFL, TOEIC중합
일본어시험 대비반
(을지로입구역 을지로서적 위) 을지로학원 ☎ 757-0419 757-0420
(4호선명동역 30m 거리) 명동어학원 ☎ 727-0271/2 753-9155

신입생여러분 합격을 축하합니다!

- 신문의 전통과 명예를 걸고 최고를 약속합니다 -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민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하이텔 (ID:2603491, press11)

방중 동국관학생식당 폐쇄 이익보다 학우위해 존재해야

세계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 '동국관' 역시 방학동안에도 인구밀도는 사상 최고였다. 방중이지만 특강을 듣고 동국관 5층 야간강의열람실을 이용하는 학우들은 추운 겨울이지만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 많은 학우들의 식사 해결은 미지수였다.
수익성을 이유로 교수식당은 운영하면서 학생식당은 공사중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폐쇄시켰다. 그로인해 동국관을 이용하는 학우들과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수의 학우들은 다량관 학생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량관 식당은 과히 식사시간이면 시장거리를 연상케 할 정도로 비좁고 불편했다. 이러한 것은 분명 공관위의 행정편의주의와 관리주의에 기인하는 결과이다. 공관위에서는 특별한 공문이나 설득력 있는 대자보하나도 발표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라는 이유로 동국관 식당을 폐쇄시켰다. 그리고 동국관 식당은 실제로 공사하는 내용은 보

이지 않았다.
진정으로 학우들의 건강과 복지를 생각하지 않는 처사이다. 또한 학기중의 식판정결문제나 음식질의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으면서도 전혀 개선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방중 폐쇄라는 문제까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공관위가 진정으로 생활으로 가고자 하는 길목에서 분명히 명확한 대안과 해명을 해야할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이어야 할에도 공관위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가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이에 야간강좌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학생복지보다 수익성에 치우치는 모습들에 반대사를 분명히 밝히고 대처해 나갈 것이고 공관위는 이를 경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학우들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것이다.
황인구
(이부대 영문과)

아련히 남는 아쉬움...졸업 선후배의 장도에 뜨거운 박수를

졸업이라는 말은 아직 겨울이 다 하지 않은 동학의 교정과도 같다. 남산 어느 귀퉁이로 해가 질무렵 뚜렷하지 않은 기억처럼 아련히 남는 아픔과도 같다.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야 오죽 하랴마는 보내는 이의 마음 또한 그에 못지않은 건 그들이 채워주었던 빈공간의 무게 때문이 아닐까 싶다.
급년 졸업식은 내게 조금은 묘한 감정을 던져준다.
지난 시간 많은 졸업식을 보면서 숲한 선배들을 떠나 보냈기에 감정을 면역이 되었을 뎡도 한때 울 해는 선배님들보다 많은 지도 모를 후배들을 떠나 보내는 자리인 탓에 마음속에 겹쳐지는 쓸쓸함의 이유를 아직은 알수가 없다.
그들에게 어떤 축하와 격려를 해야 좋을지 스스로에게 물기전에 그들은 떠나는 것이다.
진정 그들의 일정에 '축하한다' '열심히 살아라'란 말밖에 할수 없는

것인가.
많은 시간의 흐름속에, 결코 가볍지 않은 삶속에, 얼마나 많은 이들과 만나고 또 헤어짐을 되풀이 했을까. 참 사랑을 한적이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그리워 한적이 있을까. 어쩌면 그들은 시린 2월의 끝에 서 동학의 긴 그림자를 보며 누군가를 생각하고 가슴 속에 추억을 되새기고 있을지 모른다.
이제 내게 묻는다. 과연 동학을 떠나 그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음악 곳곳에 남겨진 그들의 흔적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을 사랑했는가조차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 동학의 바람과 내 가슴의 시린은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지 않은 까닭이다.
선배님 후배님의 장도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박병재
(문과대 철학과)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동대신문을 날카롭게 비판할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오는 3월3일까지 각 과대별 1~2인씩
문의: 260-3491-2 (0561)770-2057

지나친 소비행태 반성해야

성경동의 반값은 몇년사이 몇 배로 올랐습니다.
88년에는 50~60만원 하던 집값이 지금은 최고 2백만원이나 합니다. 그것은 달라고 하면 달라는대로 주는 우리의 그릇된 인식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각종 세금은 주인집에서 쓰는 집반을 우리 학생들이 부담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갑부집 아들, 딸이라고 생활비는 몰소듯 평평 습니다.
성경동 주위에 알게모르게 생긴 노랗, 술집들은 돈벌이 2층, 3층 건물이 올라가고 그렇게 돈벌이 가면서 의상값은 몇년이 지나도 잊지않는 놀라운 기억력...
술마시고 나이트클럽에는 갈 시간만 있어도 일주일에 한번정도도 도서관에 가지 않는 게 온통 동대생들!
점주의 버서사, 답답할 것 없다는 운전기사의 무관심하고 거친말투와 불친절한 서비스, 이러한 행각들을 당하면서도 10분도 채 안되는 거리를 걷기 싫다고 버스에오르는 나태한 우리들이 동대인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누구의 돈입니까? 우리의 돈 인니까? 절대 아닙니다.
공장에서 땀흘려 뺏아지도록 벌어서 부쳐주는, 눈팔아 팔팔아 소팔아 부친 부모의 돈입니다. 이런돈을

받아 먹으면서 그들은 지각없는 "동대생"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고운 눈으로 쳐다 보니까?
이제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필요이상으로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학교에는 학생복지위원회의 주체로 성경동 및 시내의 모법업소중 한국을 선정하여 D/C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우리 학우들의 대부분이 카드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인되는 돈 몇 백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야할 의무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해야 만이 우리 동국인의 힘이 커지고 위상이 높아지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젊어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과 무엇을 고쳐 나가야 할지 생각합시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진정한 거점대학이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의 의식 개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 이제다시 시작합니다. 동국인 여러분...

남윤수
(인문대 국사학과)
**아르바이트,
세상보는 잣대길러**
지난 겨울방학!

명빈 교정을 뒤로한채 부푼 가슴과 원대한 표부를 안고 서울로 입성, "등특급마련"과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가치를 걸고 '노동'의 나라스카칭에서 한달간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매표소는 나만의 공간, 사색의 장이었고 그곳에서 타켓팅하며 깨달은 많은 인생의 법칙들은 실로 새로웠다.
가끔 찾아오는 연예인의 모습에 홀로된 얼굴로 실레일 때면 순수의 미학을 다시금 배웠고, 이만한 정도의 리프트권 사용료에 백만원권 수표를 거침없이 내놓는 대학생들에게는 경이로움을 느꼈다. 스키터러 한 번 오는것이 대단한 공리도 세우는 것 마냥 의기양양하게 반발해대며 소리지르는 졸부들을 보고도 분노적인 적개심을 삼켜안 할 때면 이내신의 한계에 도달한 듯했다.
매표소의 유리창을 통해본 사회의 단면은 자본주의 이시대의 상대적 빈곤감을 자각시키고 모순의 굴레 속으로 빠져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사회의 일각을 경험하고 그것을 생생로써 사회 시찰때 대학문화속의 율바른 아르바이트 문화는 정착할 수 있으며 또한 이관점에서의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할 수 있다. 현상과 내용을 보는 지혜로 아르바이트 한두개쯤 해봄이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의 대학생활은 풍성하게 살게 세상을 보는 잣대는 그 만큼 굵어지지 않을까.
안 지헌
(법정대 행정학과)

자유 발언대

직영서점의 올바른 자리매김


3년을 이어온 기나긴 서점 운영에 관한 문제는 올해 새학기부터 학우들의 손에 의해 운영되는 직영서점으로 새롭게 모습을 바꾸었다.
93년 제9대 학생복지위원회의 서점직영화 준비위는 해화관에 직영서점을 열었고 학교측의 일방적인 임대서점 계약철폐로 93년 한 해는 한화교에 2개의 서점이라는 2중구조로 1년을 마감하였다. 그 후 학생회 선거과정에서 학복위 버리 의욕사태로 인한 학생회 구조의 약화와 함께 94년 신학기 학내 복지시설의 3차관리 형태의 공동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직영서점은 그론을 달게 되었다.
그 후 94년 9월 공관위 운영위에서 학생위원들의 직영서점의 제기로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가서 95년 2월 3년여의 논의속에 진행되어온 서점직영화를 이루었다.
왜 학생복지위원회는 직영화를 제기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학내 복지시설의 임대와 직영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정리하였다.
현재 남한 자본주의 사회구조속에서 학내 매장 임대업자는 자본의 속성상 이윤추구라는 목적을 1차적 경영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윤추구가 사회에서의 경쟁에서 추구될 경우가 아닌 대학이라는 특수성-특정성과 사용자 연속성-에 기인하여 대다수 사용자인 학생에게 강요된다는 것이다.
물론, 고정된 가격속에서 이윤이 적다고 항변하겠지만 대학내 1만이라는 소비인구가 이용하는 액수는 기존 기업에서의 바리다매의 판매형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구조는 많은 이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학생복지위원회는 학우들에게 복지매장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윤을 다시 학우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구조는 매장 직영화를 통한 직접 전환의 형태를 가질러 한다. 이와함께 임대매장의 경우 매장의 전문성으로 인해 직영되었을 시보다 현저히 이용에 불편을 주는 매장을 제외한 학내 전매장에 대한 직영화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직영이 모든 해결의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첫 걸음으로, 생활협동조합으로 가는 단계에 시차된 서점직영은 학우 여러분의 한마디 충고와 서점 직영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훈현기

(제11대 학생복지위원회 사무국장·회계학과)

기다림

이은주 (예술대 미술학과)



이 그림은 지난 10월26일 운현궁 미술관에서 개최된 미술학과와 졸업작품전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자유에 대한 감각

이명주 (국문 74졸·고명중학교 국어교사)



자유에 대한 신념은 잡계의 구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하늘에 떠 있는 별빛이 낮에는 보이지 않듯이 그것은 광명한 일상 속에서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잡계와 골짜기 생리화된 어둠 속일수록 그것은 실천적 항거의 실재를 통해 그 온전한 빛을 드러낸다.
잡계가 생리화된다는 것은 약자를 누를 만한 자유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한 자유에 맞서서도, 군림하고 있다는 자신이 서지 않으면 초조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다양한 방식의 통제가 자신에 의해 수행되고 있을 때에만 안심되는 상태를 말한다. 안정과 질서는 통제의 산물이라고 느껴지는 상태일 때, 그것은 절정을 이룬다. 물리적인 힘은 그 가장 유용한 무기가 된다. 그리고 그 힘을 '사물화'한다.
골짜기 생리화된다는 것은 공기 자체를 압박하는 여압 구조에 잘 길든 몸통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다. 공적인 제도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에도 그것은 사사로운 욕망을 은폐하는 위장에 불과한 것이 된다. 물론 그 관계는 매우 탐욕스러운 수밖에 없다. 서로의 가슴에 못을 박아가면서도 그것들은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서로를 빨아들이며 자유로부터 끝없이 도망치는 구원의 연인들처럼, 이 경우 극과 극은 서로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욕구에 불타는 한몸으로 통한다.
자유에 대한 신념은 그만두고라도, 지금의 일상 속에 묻혀 있는 우리의 '자유'에 대한 감각은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
교단생활 22년째를 맞으며 아직도 자신이 서지 않는 말이 하나 있다. '사랑의 매'라는 말이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의 손바닥 밑에서 박살이 나고 있는 아이들의 뼈살간 불따구리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알고 있다. 온몸을 나타하는 공기의 냄새가 자유인가, 잡계인가!

동/약/광/장

목 먹골

- 동문회당: 수학교육과 4학년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해요! 어디서든 행복하세요.
- 수교과 한 학우: 지교과 4학년 선배님들! 사회의 새새기가 되신 걸 축하합니다.
- 지교 94일동: 재동국대 광남교의 졸업생 모 든분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 동문회 일동: 지교과의 도시락, 해원 생일을 전 하게 축하드립니다.
- 지교 이쁜이 일동: 한국상경학회 회원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31대 staff: D-U-C-A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 또 축하드립니다!!
- 재순이요: 법대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졸업 축하드립니다. 항상 동병안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합니다.
- 후배들이: DUBS 36기 15명이 드디어 정국원이 되었습니다. 축하해 조인~~
- 성운, 기은, 동우 팀의 모든 졸업생님을 시원섭섭하군요.
- 대회 (87), 영호 (91)형님들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 통조19기일동: 8971회 동기들의 졸업을 축하한다.
- 8971짜꼬래기들: 자과연 후배일동 재동국대 성동동문회 여섯분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곳곳이 취직 잘 하세요.

알립니다

- 고려고동문회에서 25일 (토)6시 교수식당에서 총동문회-졸업생 환송식 있습니다.
- 그리고... 새로운 신입생들을 맞으며, 기존의 벗들을 떠나보내며,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함께 있오리.
- 산공: 10기 선배님들 졸업축하드립니다. 사회에서도 멋진 선배님들 되시고요. 한번 탈코는 영원한 탈코입니다.
- 문장: 사법대 새내기 세로배우터를 준비하신 사법대 모든 일꾼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이후에도 그만큼의 열정으로 학림의 발전을 쟁취하시다.
- 학림의 꿈동산 사장: 문-풍-연 식구를 수고했습니다.
- 패장: Newsweek선배님들 졸업 축하해요. 돈 많이 벌어서 술 사주세요. 자주 찾아오세요. 졸업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 News 후배들이: 통째, 원종야 경영 (야) 91 아 그들이 졸업축하해. 학교는 우리가 지키마.
- 영남: 꽃밭같은 4년을 보내고 가시는 국문과 88선배님들 건강만 사회인이 되세요.
- 국문과 94 꼬맹이: 정보산업 졸업하는 선배님들 축하드리고요. 사회에 나가서 꼭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95년에 겨우 활든 갈매울림: 윤영아·정임아·순임아·유정아·민정아 언니 10대 총여 이관다고 수고 하세요. 보내드리기 싫지만 졸업하게 됨을 다행으로 여기고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재지번으로 동기들과 같이 졸업을 못하게 된 민정이 언니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 다부진 11대 총여학생 후배들이: 대자원 봉사단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축하드립니다.
- 대근가는 94미스 대자봉: 그날이 오면의 창한 선배님과 은영선배님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선배님들의 미래

온 방골

- 축하합니다: 통일조국을 위해 가열차게 질주하던 모습이 그림납니다. 부디 학교를 떠나시더라도 95년 통일조국을 안아오기에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있으리니 좋겠습니다. 통일 원년 2월 19일
- 통일 바라는 후배들이: 심수민, 손순호, 최병국, 조종삼, 김성태, 원배규, 엄수진 선배님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독심과 지혜의 동이리 연합회 일동: 병당선배 졸업축하해요,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 운화: 인숙이 언니, 항상 언니 생각하노져 아시죠? 졸업무지축하해요.
- 가교 94 현주후배가: 학생회관을 떠나시는 모든 구신(가)들께, 무사히 졸업하심을 축하드리고 어디를 가시더라도 밥 끊지 말고 잘 먹고 잘 사시오!
- 90 산적이: 동-음 졸업생 여러분 선-후배들께선 부디 안녕히...희망찬 내일

축하합니다

- 불교학생회 졸업생 선배님, 열심히 일하시고 공부하시고...부디 사회에 나가서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길 빌겠어요.
- 불교학생회 30대일동단: 14기후배: 사랑하는 관공경영 선배님들, 아쉽운 마음 글할길 없는 후배, 이 사회의 빛이 되길 마음속 깊이 바랍니다.
- 93 후배울림: 회화회 여러 선-후배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상경대 쫓자: 일문과 선배님들 졸업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멋진 선배님들의 힘찬 기상, 멋진 미래를 기원합니다. 사랑해요.
- 94 일동: 권남조, 최현철, 안민우, 송인오, 배인호, 유재성, 고재철, 박기원, 송석구등등 선배님들의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해원VS재형: 상경대 예비대학 보람있었으면 하고요. 각각 여러 선배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진보와 연대의 제7대 상경대학생회

영화의 패러독스

바이올린 플레이어

부르조아·민중음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바이올린 연주가 그려



한 인간의 삶이 개인의 열망추구보다도 다른 소외된 사람들에 회관과 용기를 주는 목적으로 영위된다면, 그 삶은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영화가 단순한 상업적 계산하에서만 기능하지 않고 자기 주변의 삶과 현실의 어두운 부분에 빛과 목소리를 줌으로써 문화적 각성을 보태준다면, 그 영화는 분명 위대한 걸작이다.

이올린 연주가 이지만 명예로운 그 길을 포기하고 스스로 지하철의 거지 연주인이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의 갈등은 음악사를 통해 일관되는 부르조아 음악과 민중 음악의 갈등이다. 필로스 포먼의 '아마테우스'도 걸음으로는 천재와 범인의 갈등을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모차르트의 화려하고 귀족적이며 천재적인 음악이 민중의 삶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건 한낱 부르조아의 유희이며 정치권력의 시너노트 밖에 못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 세계가 아닌 지하철, 어둠속의 질서촌, 지하수로를 타고 가면서 음악의 선율을 들려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영화의 뛰어난 점중의 하나는 연가자들이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빈민가에 틀린 그가 바이올린 연주를 묵묵히 할때, 현실의 온갖 설움과 압박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갖가지 사연의 빈민들이 재각기 터져오르는 꽃병오리처럼 힘찬 의지를 각성하게 되는 장면은 오직 음악선율과 인물들의 표정, 움직임, 배경의 빛과 어둠의 영상으로만 구성되는 이 영화의 압권이다. 이 영화는 음악의 본질을 잘 드러내면서 동시에 예술의 세계를 또한 그것이 곧 광범한 우리 인간의 보편적 지향정임을 분명히 운유하고 있다.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 영화평론가)

송광사서 군법사 생활할 예정

“배운 불교 몸으로 실천할 터”

약간 창백해 보이는 얼굴에 사각급 데안경을 낀 수석졸업자 최원섭(불교 4군)은 갑작스런 취재에 놀란듯 “기쁩니다”로 간단히 소감을 말했다. 평균학점 4.45점, 총 1백53학점을 이수해 수석졸업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인천에 있는 집에서 학교로 출근, 수업이 끝나자마자 곧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행하는 생활을 입학때부터 해왔다.

M.T 등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아쉬워 했다. 다 식은 커피를 한모금 마시며, “속재요? 꼭 제출을 해야죠. 레포트는 하진 않습니까? 또 각각, 결석 등 자기절제를 하지못해 학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겠소. 교수님이 조금만 늦으셔도 휴강을 하면서 학생들은 30분정도 지각을 하는데 새내기 여러분은 안그러길 바랍니다”라고 신입생에게 하고픈 말을 했다. “무엇을 하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학인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계를 받은 다음 군에 입대해서 3년 동안 군생활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서 “제대를 하면 대망의 2천년이군요”하며 웃는다.

졸업을 한후에도 계속 공부에 전념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진로를 밝혔다. “지도를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고 특히 항상 결에서 도움을 주셨던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래도 그만큼 밝기를 기원한다. (承)

서울캠 최원섭(불교 4군)

수석졸업자 인터뷰

경주캠 김태영(가교 4)양



학업에 대한 열의 남달리 강해
“적극적 대학생활 얻을 것 많아”

“와..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길래 수석졸업을 하는거지? 바로 그 수석졸업생 김태영(가교 4)양의 대답은 그야말로 경이했다.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기숙사에 있으면서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했죠.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성적을 잘 주신것 같아요.”

같은 기적이었다. 부모님, 교수님, 선배 후배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간단히 소감을 밝혔다. 사실 김양은 지난12월 교직원총회에서 낙방했다. 항상 적극적·공정적으로 사고하기에, 실망은 했지만 지금 안되면 나중에 잘 될거라 믿고, 그러다보니 학교에서도 기본 소식이 들리더라. 그리고, “어떻게 과수석이 떨어지

나”는 힘책에 “너도 한번 쳐봐”하며 되려 큰소리를 치기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다. 그러나, 상황에 맞게 길 들여지기 마련인 것 같다” 지난 5월에, 출신 중학교로 교생실습 나갔을 때, 가사실습 시간 앞치마 걸친 선생님보다 가운 입은 교생을 부러워 했던 1학년 꼬마애들과 한달간 생활하면서 느꼈다면서 그 애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비추기도 했다. 이제 교문을 나서면서 새로 들어오는 95학번 새내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요즘 신세대는 알아서 잘 하는 것 같더라구요. 굳이 하지만 성적만이 대학생활의 전부 아니라고 봐요. 뭐든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성적외에 또 다른 무엇에 열의 필요. 하루 한시가 다르게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4년 공부는 금세 옛 것이 되고 말아요. 뭐든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히 끝까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해요. 하찮은 (가) 동아리(서라벌 다우회)이었지만, 끝까지 한 것에 뿌듯함을 느껴요” 앞으로 계획은 교직 임용고시를 꾸준히 준비하면서 경제적 능력을 가진 뒤 대학원 진학도 하고,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뭐든 해 나갈 생각이 있다고 한다.

(박효선 기자)

메아리

교육 수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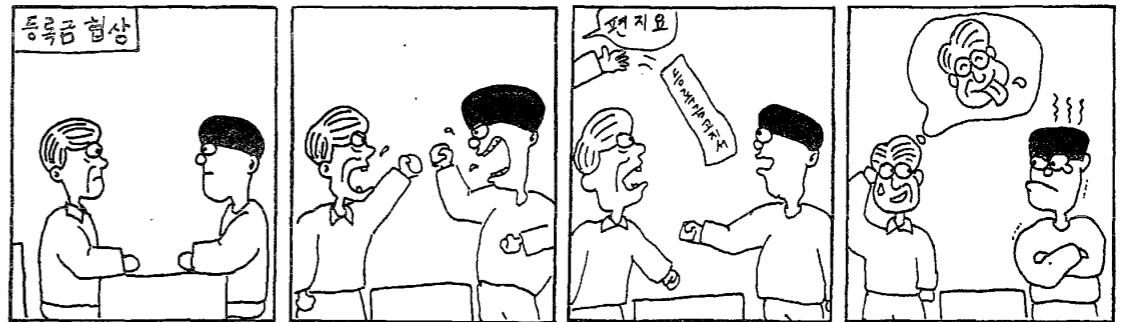
▲매년 학기초면 학교를 뜨겁게 달아 오르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등록금문제이다. 이는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 거의 모든 대학에서 품살을 앓고 있는 문제일것이다. 왜 등록금은 매년 학내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을까에 대한 풀음에 그 책임을 딱히 누구에게 물을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큰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89년전 불교계 선각자들은 민족의 동량과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품곡을 세웠다. 이러한 품곡의 설립취지는 당시 위태로운 민족의 운명을 올바르게 세워줄 인재 길러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품곡은 그 역할을 근 한 세기 동안 충실히 이행해왔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들 해 왔다. 이 말에 크게 의미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교육의 수혜자는 직접교육을 받는 학생뿐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등록금의 구성을 바라보면 등록금 문제가 왜 매년 제기될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논리가 1차적 수혜자에게 편중되고 있다. 또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마저도 학생들에게 떠넘겨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등록금은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가. 우선 국가의 교육비 부담이 확대 되어야 할것이다. 이는 국가의 미래가 바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음을 인식한다면 당연할것이다. 현재처럼 국고보조금이 적으면 많이 지급되고 잘못이면 적게 지급되는 대학의 통계 수단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분명 국가의 백년을 포기하는 행위일것이다. 또한 학교발전의 대안과 학습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이를위해 재단은 적극적인 재정확보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繼)



서승현 (2)



최첨단 고속통신 100년 전통의 한국통신

죽
졸업 임학

문을 열자! 정보통신의 세계로!!

001

전화 1대로 정보화 시대의 꿈 실현

전화 HTEL

- 최신 각종정보 제공
- 주문, 예약, 홈 뱅킹
- 영문 해외 D/B연결
- 전자우편, 동호회
- 정보검색 등 무진장

능력있는 비서

- 착신통화 전환
- 통화중 대기
- 지정시간 통보
- 부재중 안내
- 3인 통화
- 단축다이얼
- 직통전화

인터넷 (KORNET)

(전화+PC)

- Network News(전세계)
- 국내외 전세계 140개국 인터넷 가입자들과 전자우편 송수신
- 외국 유명대학 연구기계의 각종 D/B와 접속하여 문헌정보 검색

지금 월부 전화를 판매합니다

- 설비비총액 : 25만원
- 설비비분납 : 10회까지 가능 (첫회에 25,000원만 불입)
- 대 상 : 을지전국 가입구역 내에 거주하는 동국대학생
- 신청서 : 재학생명서 1통 또는 학생증사본 1부 (단, 미성년자는 제외)

대한정보통신
죽의 시작입니다

TEL : 271-0200 272-0200 266-0200 FAX : 273-0007 268-0115

한국통신 을지전화국